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재 기

2018년 2월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남 진 열

이 재 기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이재기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년 12월



The Effect of Rural Living Infrastructure on th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Life
:A study on the Eastern Region of Gyeongbuk

Lee, Jae-Ki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

이 재 기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82번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입각해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인프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농촌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개선된 생활 인프라 모델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척도를 이용해 2017년 11월 경북 동부지역인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 및 교통 인프라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보건의료 및 문화·여가 인프라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농촌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채널 다양화 및 연령·학력별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아동관련 교육을 통한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확충 및 농촌 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농촌 교육의 차별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 회수 증대나 운행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100원 호도 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수요 응답형 농촌 버스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인프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 만족도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한정적 재원의 투자배분 우선순위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농촌노인 복지, 생활 인프라, 정주여건, 삶의 만족도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 제1절 노인의 정의 | 5 |
| 제2절 농촌노인의 특성 | 6 |
| 제3절 농촌 노인인구 현황 | 7 |
| 제4절 삶의 만족도 | 10 |
| 제5절 생활 인프라 | 12 |
| 1. 보건의료 인프라 | 14 |
| 2. 교육 인프라 | 15 |
| 3. 문화·여가 인프라 | 16 |
| 4. 교통 인프라 | 17 |
| 제6절 선행연구 고찰 | 18 |
| 제3장 연구 방법 | 22 |
|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 22 |
| 1. 연구모형 | 22 |
| 2. 연구가설 | 23 |
| 제2절 조사 설계 | 23 |
| 1. 조사 대상과 조사기간 | 23 |
| 2. 설문지 구성 | 24 |
| 3. 분석 방법 | 25 |

| | |
|------------------------------|---------------|
| 제4장 연구결과 및 분석 | 26 |
| 제1절 일반적 특성 | 26 |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6 |
| 2.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 28 |
| 제2절 인프라별·생활만족도 특성 | 30 |
| 1. 보건의료 인프라 | 30 |
| 2. 교육 인프라 | 39 |
| 3. 문화·여가 인프라 | 49 |
| 4. 교통 인프라 | 58 |
| 5. 삶의 만족도 | 67 |
| 제3절 연구가설 검증 | 72 |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4 |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4 |
| 제2절 정책적 제언 | 75 |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76 |
| 참 고 문 헌 | 77 |
| 부록(설문지) | 81 |
| ABSTRACT | 88 |

표 목 차

| | |
|--|----|
| 【표2-1】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현황 | 8 |
| 【표2-2】 우리나라 농가인구 현황 | 8 |
| 【표2-3】 경북 동부지역 4개군 노인인구 현황 | 9 |
| 【표2-4】 생활 인프라 관련 유사 용어 | 13 |
| 【표2-5】 생활 인프라 시설유형 | 14 |
| 【표3-1】 설문지 문항 구성 | 24 |
| 【표4-1】 인구통계학적 응답 현황 | 27 |
| 【표4-2】 신뢰도 분석 결과 | 29 |
| 【표4-3】 인프라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9 |
| 【표4-4】 보건의료 인프라 응답 현황 | 30 |
| 【표4-5】 보건의료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31 |
| 【표4-6】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교차분석 | 32 |
| 【표4-7】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차분석 | 35 |
| 【표4-8】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보건의료 인프라 ANOVA 분석 | 37 |
| 【표4-9】 교육 인프라 응답 현황 | 39 |
| 【표4-10】 교육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40 |
| 【표4-11】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지난년간 평생교육 유무 교차분석 | 41 |

| | |
|---|----|
| 【표4-12】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차분석 | 44 |
| 【표4-13】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교육 인프라 ANOVA 분석 | 47 |
| 【표4-14】 문화·여가 인프라 응답 현황 | 49 |
| 【표4-15】 문화·여가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50 |
| 【표4-16】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가장 하고싶은 문화여가활동 교차분석 | 51 |
| 【표4-17】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지역적 제약요인 교차분석 | 54 |
| 【표4-18】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문화·여가 인프라 ANOVA 분석 | 56 |
| 【표4-19】 교통 인프라 응답 현황 | 58 |
| 【표4-20】 교통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59 |
| 【표4-21】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교차분석 | 60 |
| 【표4-22】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교차분석 | 63 |
| 【표4-23】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교통 인프라 ANOVA 분석 | 65 |
| 【표4-24】 삶의 만족도 응답 현황(Ⅰ) | 67 |
| 【표4-25】 삶의 만족도 응답 현황(Ⅱ) | 68 |
| 【표4-26】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 ANOVA 분석 | 68 |
| 【표4-27】 다중회귀분석 결과 | 72 |
| 【표4-28】 가설검증 결과 정리 | 73 |

그림 목차

| | |
|---|----|
| 【그림2-1】 도별 노인인구 분포 | 9 |
| 【그림2-2】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18 |
| 【그림2-3】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18 |
| 【그림2-4】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19 |
| 【그림2-5】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19 |
| 【그림2-6】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19 |
| 【그림2-7】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20 |
| 【그림2-8】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20 |
| 【그림3-1】 연구 모형 | 22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2016년에는 13.5%로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25년에 이르면 고령화율이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7).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간 고령화 속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연간 4.06%로 경제협력기구의 평균 고령화 속도인 1.19%보다 약 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최용욱, 2016).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률 저하 문제 등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노년층의 절대 빈곤 및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인구총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8.4%로(통계청, 2015),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은 도시보다 고령화율이 약 3배를 초과한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지원의 효과로 2016년 귀농인은 13,019명으로 전년(905명) 대비 7.5% 증가하였고 귀촌인은 475,489명으로 전년(466,778명) 대비 1.9% 증가하여 2016년 농촌의 고령화율은 전년보다 0.7% 감소하여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감소율을 보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의료, 교육, 교통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과 같거나 감소($\Delta 1.7 \sim \Delta 2.9$)하였고, 문화복지만 전년대비 0.7% 증가하였다(201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도·농간의 분야별 만족도 평균 차이를 보면 의료 1.50%, 교육 1.46%, 교통 1.91%, 문화 1.90%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정도채·심재현·유은영, 2016)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편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4년 3월 국회에서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

전을 위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을 제정하였다.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의 시행을 위해 중앙 및 각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현재 3차(2015~2019)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농촌의 보건 의료, 교통 등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농촌의 기초적 생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년부터 100원 택시 등 새로운 농촌형 교통모형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의 농촌 고령화율 증가세에 비추어 볼 때 생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이라는 정부의 전략목표가 목표로만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와 같이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을 담보로 빛나는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자연 훼손에 의한 자연재해가 다발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담보했던 자연을 다시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의 삶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04년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약 83조원 수준으로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09조원에 달한다. 이렇듯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보존,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자연생태계 유지 등 무궁무진하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농업·농촌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해 이를 근거로 농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단체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조건에 필수적인 인프라는 생산기반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로 구분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전력, 가스, 산업단지,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생산기반 인프라를 인프라로 여겨왔다. 보건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여가시설, 교통시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는 그 지역 주민의 몫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생활에 밀착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생활 인프라가 대두 되었다(조판기 등 10, 2013).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복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의 주거환경, 경로당, 병원 등 특정 물리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 및 농촌 노인의 우울, 정신건강, 심리적 특질 등 정신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로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인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4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농촌 지역의 분야별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지역별 개선된 생활 인프라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 노인과 차별된 농촌의 노인 복지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인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후 더 발전된 농촌노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에서는 노인의 정의, 농촌노인의 특성, 농촌노인 현황, 삶의 만족도, 생활 인프라(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개념,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을 통해 통계 분석 후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

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과 함께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 모색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여러 생활 인프라 중 도시-농촌 간 격차를 보이는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여가 인프라, 교통 인프라 4개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수행방법은 우선 경북 동부지역인 영덕, 영양, 봉화, 울진지역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4H 회원을 통해 1:1 설문조사를 하였다. 면단위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에 실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의 정의

노인(老人)의 문자적 해석은 늙은 사람으로 나이, 신체적 노화 기준으로 단순히 정의할 수 있으나 현대 문명이 복잡 다양화 되어지고 사회적 이해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노인의 정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복합적인 해석들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브린은 노인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쇠퇴기에 있고 통상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위상실 연령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①생리적 및 생물학적 측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②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으로 정의 하였다(Breen, 1960; 최혜경, 2016 재인용).

권중돈에 의하면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의 변화로서 주로 퇴행적 발달을 의미한다(권중돈, 2016). 일반적으로 노화란 퇴행적 발달로 일컬어지면서 상승적 발달을 의미하는 성장이나 성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지만 학술적 논의에서 노화의 개념은 정상적 발달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정의된다(최혜경, 2016).

이러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노인은 ‘노화과정 및 결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생활상의 자립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영향을 받고 이와 관련해 제도적, 정책적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해 볼 수 있겠다(최혜경, 2016).

UN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정책 시 국제적 연령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진 노인연령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절 농촌노인의 특성

일반적인 노인의 정의와 함께 농촌노인들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적 특성들이 추가되어 일반적인 노인과 구분된다. 일반적인 노인의 특성은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촌노인들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김현호, 2012).

첫째, 신체적 특성은 피부와 지방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골격과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비대와 심장박동의 약화 등의 구조적인 쇠퇴와 흰머리의 증가, 주름살의 증가, 검은 반점의 증가, 신장의 감소 등의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신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시각의 노화로 시력소실이 오기도 하고, 청각의 약화로 소리의 고저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농촌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신체적 노화가 도시인보다 다소 촉진되는 경향이 많다.

둘째, 신체적 노화와 함께 정신적·심리적 노화도 경험하게 된다.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기능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내향적이고 수동성이 증가하며, 경직성, 우울의 경향, 의존성,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등이 증가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노인부부만 사는 세대 혹은 혼자 사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기존과 다른 가족지지체제의 변화는 노인들의 소외와 고독, 우울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누리던 지위와 역할의 감소 및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이 되면 사회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 소외와 고립의 증가, 이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 지위의 약화 등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며, 자녀의 출가와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가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로 인한 개인의 여가 시간은 증가하나, 이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가 된다(허문섭, 2004).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소외감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농촌 노인의 일상적인 농작업은 많은 운동량을 요하는 신체적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농작업은 쪼그려 앉는 자세, 구부린

자세 등의 무리한 자세들이 반복되므로 요통, 어깨결림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되며,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농약중독도 나타난다.

영농활동에서는 일손부족, 과도한 노동, 가격 하락, 농업기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박규택, 2014). 농업형태가 상업적으로 변화하여 전문화·규모화되고, 농기계, 농업기술, 유통 시스템 등이 선진화 되면서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 노인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동행해 주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까지 방문할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병원비 부담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번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2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홍규, 2015).

이러한 문제는 농촌 노인의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 변동을 경제성장률,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연관지어 분석해 본 결과, 경제성장이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와 노인 경제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노인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의 자살률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이정민, 2015).

농촌 노인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농촌 정주여건을 포함한 농촌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연결된 문제로, 농촌 노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노인과의 차별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농촌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 나라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코스트’에 직면하고 있다(Lesnoff-Caravaglia, 2007)

제3절 농촌 노인인구 현황

2015~2065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표 2-1)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990년 219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4,286만 9천명)의 5.1%를 차지 하였으나, 2016년 기준 818만 1천명으로 전체인구(5,124만 5천명)의 16.1%로 26년동안 약 3배

증가하였고, 2017 농축산식품 주요 통계지표(표 2-2)에 따르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6년 기준 100만 6천명으로 농가 전체 인구(249만 6천명)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 연도 | 총인구 | 65세 이상 | 비율 |
|------|--------|--------|------|
| 1990 | 42,869 | 2,195 | 5.1 |
| 2000 | 47,008 | 3,878 | 8.3 |
| 2010 | 49,554 | 6,288 | 12.7 |
| 2016 | 51,245 | 8,181 | 16.0 |
| 2020 | 51,973 | 10,018 | 19.3 |
| 2030 | 52,941 | 15,947 | 30.1 |

* 2016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이후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표 2-2】 우리나라 농가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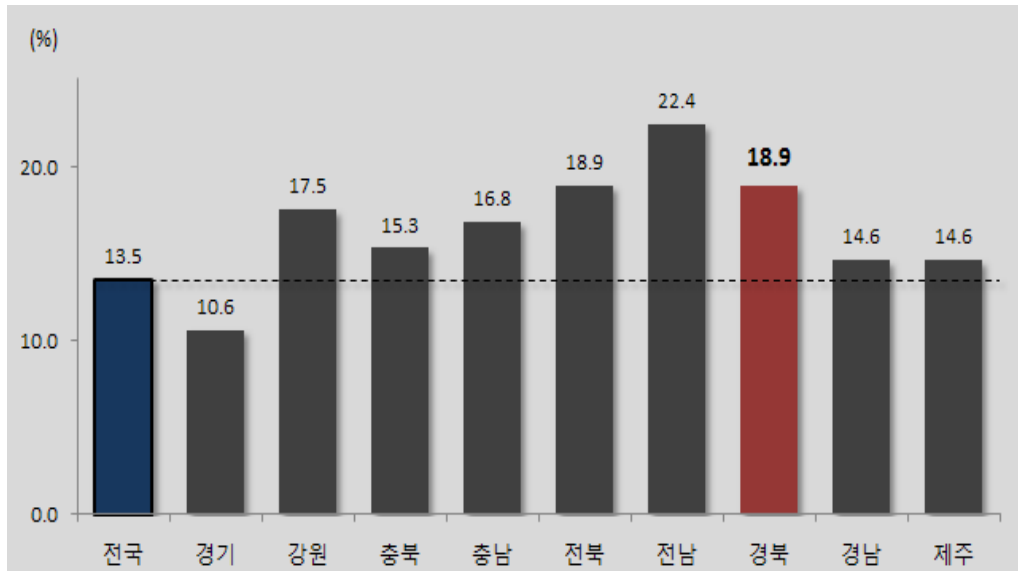
| 연도 | 농가인구 | 65세 이상 | 비율 |
|------|-------|--------|------|
| 2014 | 2,752 | 1,076 | 39.1 |
| 2015 | 2,569 | 986 | 38.4 |
| 2016 | 2,496 | 1,006 | 40.3 |

* 2017 농축산식품 주요 통계지표('17.9,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도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남(22.4%), 경북(18.9%), 전북(18.9%) 등의 순으로 경북 고령화율은 전체 2위로 나타나고 있으며(그림 2-1), 특히 경북 동부지역 4개군 노인인구 현황은 2016년 기준 영덕군 34.3%, 영양군 33.1%, 봉화군 32.7%, 울진군 26.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이

미 오래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0년 영덕군 47.3%, 영양군 43.1%, 봉화군 44.9%, 울진군 36.9%로 급속하게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3 참고).

【그림 2-1】 도별 노인인구 분포



* 2016 경상북도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16.11, 통계청)

【표 2-3】 경북 동부지역 4개군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 시도별 | 구분 | 2016년 | 2020년 | 2030년 |
|------|-------|-----------|-----------|-----------|
| 경상북도 | 총인구 | 2,642,616 | 2,645,199 | 2,654,058 |
| | 65세이상 | 499,976 | 564,455 | 825,685 |
| | 비율 | 18.9 | 21.3 | 31.1 |
| 영덕군 | 총인구 | 38,802 | 38,233 | 38,569 |
| | 65세이상 | 13,308 | 14,200 | 18,260 |
| | 비율 | 34.3 | 37.1 | 47.3 |
| 영양군 | 총인구 | 17,590 | 17,313 | 17,390 |

(단위 : 명, %)

| 시도별 | 구 분 | 2016년 | 2020년 | 2030년 |
|-----|-------|--------|--------|--------|
| | 65세이상 | 5,822 | 5,924 | 7,499 |
| | 비율 | 33.1 | 34.2 | 43.1 |
| 봉화군 | 총인구 | 33,101 | 32,977 | 33,678 |
| | 65세이상 | 10,834 | 11,487 | 15,117 |
| | 비율 | 32.7 | 34.8 | 44.9 |
| 울진군 | 총인구 | 50,649 | 50,250 | 50,435 |
| | 65세이상 | 13,231 | 13,969 | 18,626 |
| | 비율 | 26.1 | 27.8 | 36.9 |

* 2016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이후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제4절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여러 학문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크게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Schuessler와 Fisher(1985)는 경제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즉 경제수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계량적 수치 및 통계를 일컫는 지표에 근거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는 관계없이 외부 관찰자에 의해 측정 가능한 생활수준이나 평균수명 등 사회적 조건을 지표로 하였다(이금자, 2008; 주재형, 2015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측면보다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같은 지표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주재형, 2015).

BBrief 외(1993)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삶의 질, 심리적 만족 등은 한 개인이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의 인지적 측면과 개인이 느끼는 기쁨, 슬픔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신영·박혜경, 2008).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행복감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의 안녕(Well-being)과 생활수준(Stan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과 유사한 용어로, 각각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주재형, 2015).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현재 삶 속에서 인지적, 혹은 정서적으로 삶에 대해 갖는 생각과 태도에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평가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생활의 변화나 개인적 성향 혹은 감정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김유진, 2017).

이와 같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체적 요인, 강인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 자아 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에 등에 의해 결정된다(이규은 외, 2011).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삶의 안녕감을 중요 시 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자가 처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한 삶의 질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약화되고 위축되어 삶의 특성상 대부분 의존적 욕구가 커지게 된다. 또한 개인마다 각기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노후의 삶 자체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지는 복합 개념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각기 다를 수 있다(조봉란, 2014).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소득, 주거환경,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종교 등을 포괄한다. 주관적 지표

로는 노인이 느끼는 안녕감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을 중시하였는데, 여기서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기대, 욕구, 희망 또는 타인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이다. 그리고 정서적 차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으로 행복감의 척도로 활용된다(박소라, 2015).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 노인을 포함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농어촌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상호, 2008).

제5절 생활 인프라

생활 인프라는 인간의 정주활동에 필요한 모든 시설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인프라의 공급과 관리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현중 외, 2015). 또 생활 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조판기 외, 2013).

인프라(infrastructure)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또는 기초시설로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ost)과 비슷한 용어로 해석되어 왔다. 인프라는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판기 외, 2013).

민범식 외(2012)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의 주요 기능을 토대로 국토보전 인프라, 생산기반 인프라, 생활 인프라의 범주로 구분하

였으며, 기반시설 중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기능을 하는 시설을 생활 인프라 라고 명명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라는 용어는 정부의 정책에 제시된 새로운 개념으로 그간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로 전환되는 시도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판기 외(2013)에서는 생활 인프라의 유사개념을 국토계획법, 도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건축기본법 등에 규정된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간선시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공공공간, 기초생활 인프라로 보고 생활 인프라 관련 유사 용어를 정리(표 2-4)하였으며, 또한, 문화시설, 공원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12개 생활 인프라 시설유형에 따른 주요 시설물을 정리(표 2-5) 하였다.

【표 2-4】 생활 인프라 관련 유사 용어

| 구 분 | 관련법률 및 계획 | 정의 |
|----------|----------------------------------|--|
|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 도축법, 도시개발법 | 경제활동 및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로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한 53개 시설을 말함 |
|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간투자법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등으로 43종의 시설을 말함 |
| 공공시설 |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공의 용(用)에 공(供)하는 시설로서 주로 공공부분이 주체가 되어 설치하며 법률에 따라 시설종류는 차이가 있음 |
| 간선시설 | 주택법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함 |
| 도시계획시설 |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
| 정비기반시설 | 도시정비법 |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을 말함 |
| 공공공간 | 건축기본법 |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
| 기초생활 인프라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함 |

* 출처 : 조판기 외(2013)의 생활 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정비방안

【표 2-5】 생활 인프라 시설유형

| 시설유형 | 주요시설 |
|---------|--|
| 문화시설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
| 공원시설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 공원 등 생활권 공원 |
| 복지시설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등 |
| 의료시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
| 보육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등 |
|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
| 교통시설 | 가로(보도 및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 |
| 유통·공급시설 | 도시가스 등 |
| 방재시설 | 저류시설 등 |
| 상·하수도시설 | 상·하수 시설 |
| 소비편익시설 | 쇼핑센터,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
| 행정시설 | 주민지원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

* 출처 : 조판기 외(2013)의 생활 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정비방안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2014년 생활 인프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중 생활 인프라의 공급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제도는 2010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와 사회 및 경제적 기능의 집중도가 낮으며, 지세, 수계 등과 같은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구와 사회적 및 경제적 기능은 소규모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사회적 및 경제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박미정, 2016).

1. 보건의료 인프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은 중요한 과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오랜 삶의 터전인 지

역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의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될 지라도 시설에 들어가 돌봄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살아오고 생활해 온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안석 외, 2017).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민간병(의)원 서비스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보건서비스가 있다. 보건서비스에는 목적에 따라 사전적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질병 및 기능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서비스, 합병증 및 기능장애 중증화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서비스가 있다(선우덕 외, 2014).

농촌은 도시에 비해 면적이 넓은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양은 매우 적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의 6%(20개)만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12.9%가 군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329개소 중 농촌에는 62개(19%)만 있어서 넓은 지역에 비해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는 농촌은 1,879명, 도시는 1,232명으로 농촌이 더 열악하다(김태완 외, 2009).

부족한 서비스와 낮은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농촌지역 노인은 높은 미충족 서비스 욕구를 경험한다.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도시(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비해 농촌(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다소 높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욕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미형 외, 2013). 이러한 미충족 욕구는 이용서비스가 있는지(availability, 가용성)와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지(accessibility, 접근성)와 관련이 깊다(Diamant et al. 2004).

2. 교육 인프라

노인교육은 아동교육, 성인교육과 함께 전 생애를 통틀어 볼 때 비중이 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동시에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면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인생의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신덕, 1998).

즉, 노년교육은 아동, 성인,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에 따른 대상의 구분이 아니라, 연령이나 지위, 성별과 무관하게 각자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한데 모이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그 속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내는 적극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한정란, 2001).

농촌노인은 도시노인보다 노인교육을 접할 환경이 미비하고 노인교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참여율도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농촌지역의 아동교육 시설은 1982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으로 농촌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게 되고, 이로 인한 도·농간 교육 격차로 또는 다른 이농현상을 낳는 농촌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게 된다(최종성, 2014).

농촌 교육환경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차원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로 그동안 농촌에 대한 교육 관련 정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통계청 2015년 폐교가 있는 행정리 수 기준 총 3,218개로 전남 772개, 경북 600개 등으로 지역별 고령화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문화·여가 인프라

생활 인프라로서 문화시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시설 중 어떠한 시설을 생활 인프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다양한 문화시설 중 생활 인프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설을 선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생활 인프라의 정의 상 소규모의 지역단위(마을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일상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로 공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민이 전반적 문화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7.9%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 20.8%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주민들이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도시의 화려한 문화여가 여건과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열악한 여건 간의 간극이 이러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야기하는 데에 기여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황정임 외, 2016).

4. 교통 인프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생활하는 세대가 적고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오토바이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대기시간과 한정된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이동의 편의성이 떨어지게 되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로 보면 전체의 15.9%가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를 장착한 자전거로 보고되고 있다(전정배 외, 2015).

또한, 대부분의 농어촌 버스회사가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방정부는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보조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전상민 외, 2012; 기명성 외, 2016 재인용). 이러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급기야 하루에 3~4대 정도 운행하는 곳이 비일비재 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개부문 과제를 선정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도농간 대교통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농촌이 도시에 비해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도채 외, 2016).

최근 농어촌교통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효율성이 떨어진 농어촌 및 도시 외곽지역에 대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이나 준공영제 등 적극적인 버스운영 시스템의 혁신적인 도입으로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 확보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원광희, 201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에 따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사업이다(김원철 외, 2015).

수요응답형 교통정책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 434개 마을만 추진하고 있어 날로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지역 버스서비스 공공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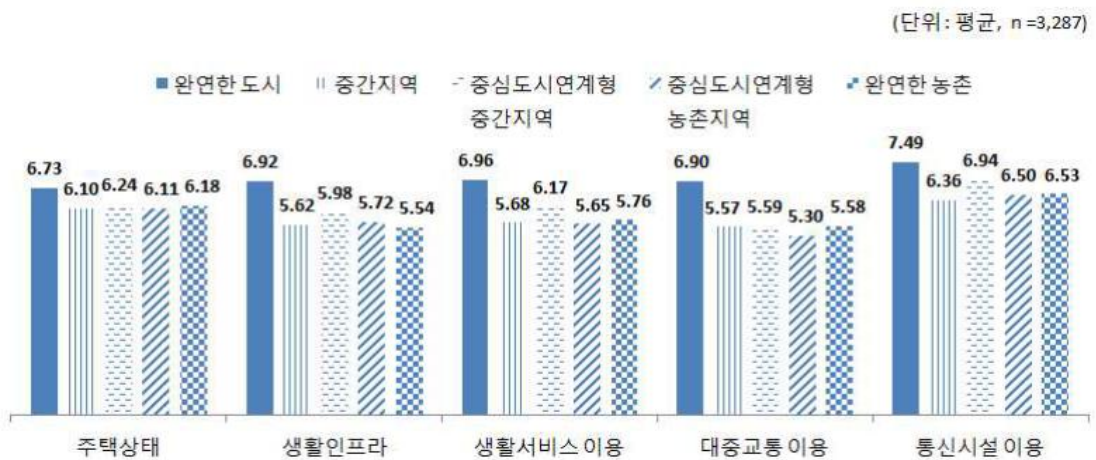
제6절 선행연구 고찰

정도채·심재현·유은영(2016)은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세부항목별 만족도 조사(그림 2-2~8)를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각자 특성이 다른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2-2】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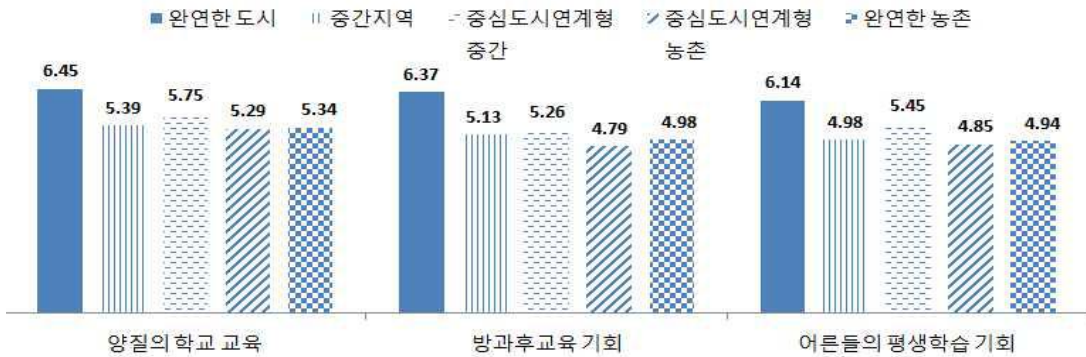


【그림 2-3】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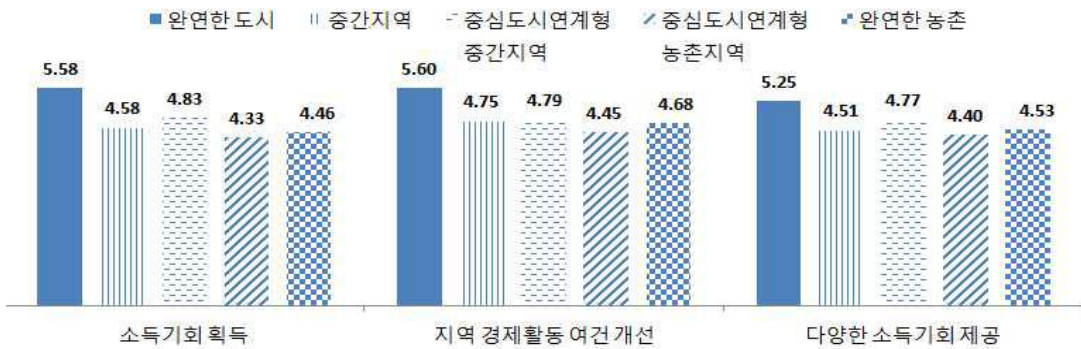
【그림 2-4】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단위: 평균, n=3,287)



【그림 2-5】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단위: 평균, n=3,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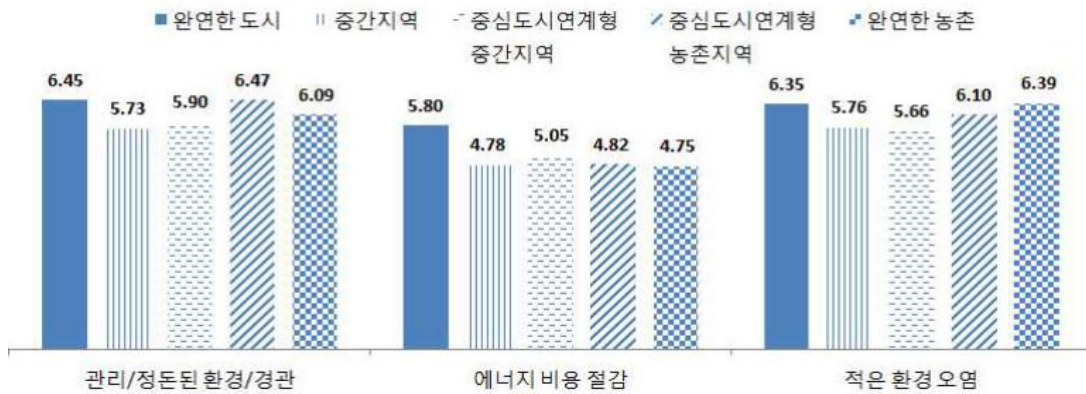
【그림 2-6】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단위: 평균, n=3,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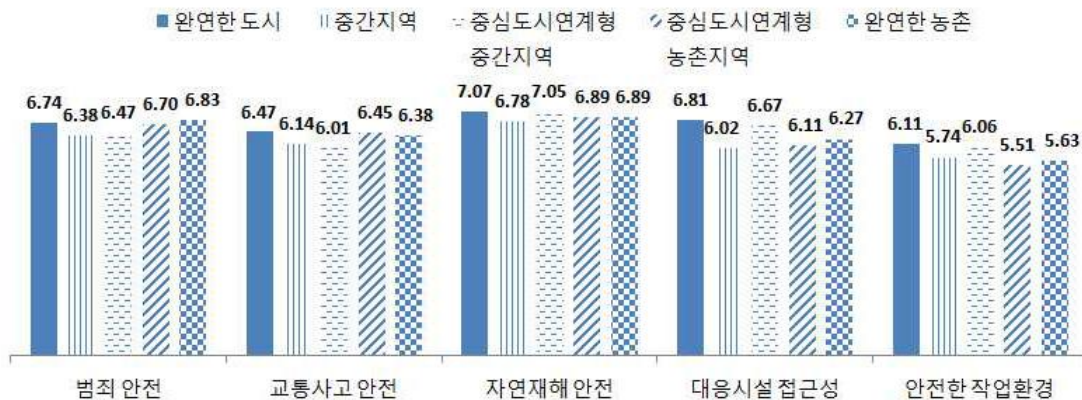
【그림 2-7】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단위: 평균, n=3,287)



【그림 2-8】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단위: 평균, n=3,287)



심재헌(2017)은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 발표 시 농촌의 변화와 생활 인프라를 소개하며 보건복지 부문, 교육부문, 문화여가 부문, 교통부문에 대한 농촌 생활 인프라의 상대적 격차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삶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경원과 전경숙(2016)은 노인허약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낙상예방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수동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중재가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농촌노인을 위한 허약 프로그램에서 낙상예방 효능감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근거를 제공하였다.

박규택(2014)은 농촌 노인복지 개선방안으로 빈곤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화보호 대상 지정 확대, 경영이양, 노령부조제도의 보완, 취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환 건강보험제도 보완 및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위한 제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안종철과 임왕규(2014)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노인학교를 운영 등 교육기관 활성화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공로당 활성화사업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단체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은주(2013)는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농촌지역 노인이 다양한 여가에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농촌 노인의 고독감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지지를 제안하였다.

곽선숙(2013)은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여가활동, 고독감을 제시하면서 가족관계 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고, 또한 고독감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차량지원과 지역주민 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형국(2010)은 농촌지역의 생태체계적 환경이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 공동작업장 운영의 활성화 도모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서 다기능 공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윤재선과 조수범(2009)은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을 비교하면서 농촌노인에 맞는 소득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농촌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안녕을 위한 농촌노인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3장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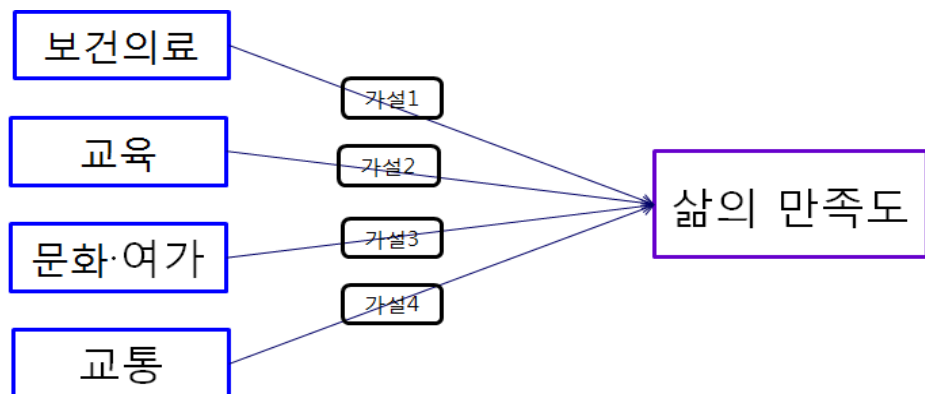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에 대한 생활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이 농촌 생활 인프라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4개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 3-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연구 가설

앞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의 4개분야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1.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농촌지역 교육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농촌지역 문화·여가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조사 설계

1. 조사대상과 조사기간

조사는 2017. 11월에 경북 동부지역인 영덕, 영양, 봉화, 울진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선도농가 4H회원들을 통해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면 단위의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총 200부를 설문하여 미 회수 5부를 제외한 총 195부(97.5%)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농촌진흥청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14~2016) 분야별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적용 하였으며, 6개 분야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8문항을 구성하였고,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등 4개분야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파악을 위해 각 5문항씩 20문항을,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6문항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설문지 문항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 구 분 | 조사항목 | 문항수 |
|-----------|---|-----|
| 계 | | 34 |
|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거주기간, 동거인 유무, 주거형태, 소득 | 8 |
| 보건의료 인프라 | 주 이용 의료기관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 의료인력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 만족도 전반적 보건의료여건 만족도 | 5 |
| 교육 인프라 | 교육유무 교육 시 어려움 평생교육 만족도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여건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5 |
| 문화·여가 인프라 | 문화·여가활동 선호도 지역적 제약요인 시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 문화·여가여건 만족도 | 5 |
| 교통 인프라 | 주이용 통행수단 외출 시 불편한점 대중교통 배차 만족도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 교통여건 만족도 | 5 |
| 삶의 만족도 | 노후걱정, 과거후회, 농사일 보람, 농업에 대한 희망, 현재 삶에 대한 행복 농촌 삶 만족도 | 6 |

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처리 하였고,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먼저 일반사항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여가 인프라, 교통 인프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두 집단 이상에 대한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및 분석

제1절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해당지역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104명(53.3%), 여자 91명(46.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60~65세 58명(29.7%), 66~70세 55명(28.2%), 71~75세 46명(23.6%), 76~80세 29명(14.9%), 80세 이상 7명(3.6%)으로 60~65세가 가장 많았다. 학력 수준의 경우 무학 62명(31.8%), 초졸 68명(34.9%), 중졸 29명(14.9%), 고졸 25명(12.8%), 전문대 졸업 이상 11명(5.6%)으로 초졸이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 85명(43.6%), 기독교 46명(23.6%), 천주교 7명(3.6%), 불교 55명(28.2%), 기타 2명(1.0%)으로 무교가 가장 많았다.

거주기간은 10년 미만 2명(1.0%), 10년~30년 미만 8명(4.1%), 30년~50년 미만 20명(10.3%), 50~70년 미만 85명(43.6%), 70년 이상 80명(41.0%)으로 50~70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동거 여부는 혼자 58명(29.7%), 배우자 등 137명(70.3%)으로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거형태는 자가 176명(90.3%), 임대 13명(6.7%), 기타 6명(3.1%)으로 자가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월 50만원 미만 29명(14.9%), 50~100만원 미만 68명(34.9%), 100~200만원 미만 70명(35.9%), 200~300만원 미만 26명(13.3%), 300~500만원 미만 2명(1.0%)으로 월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표 4-1 참고).

【표 4-1】 인구통계학적 응답 현황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성별 | 남자 | 104 | 53.3 |
| | 여자 | 91 | 46.7 |
| | 전체 | 195 | 100 |
| 연령 | 60~65세 | 58 | 29.7 |
| | 66~70세 | 55 | 28.2 |
| | 71~75세 | 46 | 23.6 |
| | 76~80세 | 29 | 14.9 |
| | 80세이상 | 7 | 3.6 |
| | 전체 | 195 | 100 |
| 학력 | 무학 | 62 | 31.8 |
| | 초졸 | 68 | 34.9 |
| | 중졸 | 29 | 14.9 |
| | 고졸 | 25 | 12.8 |
| | 전문대 졸업 이상 | 11 | 5.6 |
| | 전체 | 195 | 100 |
| 종교 | 무교 | 85 | 43.6 |
| | 기독교 | 46 | 23.6 |
| | 천주교 | 7 | 3.6 |
| | 불교 | 55 | 28.2 |
| | 기타 | 2 | 1.0 |
| | 전체 | 195 | 100 |
| 거주기간 | 10년 미만 | 2 | 1.0 |
| | 10년~30년 미만 | 8 | 4.1 |
| | 30~50년 미만 | 20 | 10.3 |
| | 50~70년 미만 | 85 | 43.6 |
| | 70년 이상 | 80 | 41.0 |
| | 전체 | 195 | 100 |
| 동거가족 | 혼자 | 58 | 29.7 |
| | 배우자 등 | 137 | 70.3 |
| | 전체 | 195 | 100 |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주거형태 | 자가 | 176 | 90.3 |
| | 임대 | 13 | 6.7 |
| | 기타 | 6 | 3.1 |
| | 전체 | 195 | 100 |
| 소득 | 50만원 미만 | 29 | 14.9 |
| | 50~100만원 미만 | 68 | 34.9 |
| | 100~200만원 미만 | 70 | 35.9 |
| | 200~300만원 미만 | 26 | 13.3 |
| | 300~500만원 미만 | 2 | 1.0 |
| | 500만원 이상 | - | - |
| | 전체 | 195 | 100 |

2.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4개 분야 생활 인프라 만족도 분석을 위해 구성된 측정 항목들이 해당 이론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특정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을 산출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각 항목들의 신뢰성을 평가 하였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표 4-2) 구성요소(보건의료 인프라·교육 인프라·문화/여가 인프라·교통 인프라·삶의 만족도)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일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준치인 0.6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실증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 구 분 | Cronbach의 알파 | 항목수 |
|-----------|--------------|-----|
| 보건의료 인프라 | .932 | 3 |
| 교육 인프라 | .893 | 3 |
| 문화·여가 인프라 | .889 | 3 |
| 교통 인프라 | .898 | 3 |
| 삶의 만족도 | .846 | 6 |

* 분야별 명목척도를 제외한 등간척도 항목 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에서의 교육 인프라 상관계수 0.554, 문화·여가 인프라 상관계수 0.513, 교통 인프라 상관계수 0.334, 삶의 만족도 상관계수 0.226으로 교육 인프라와 가장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인프라 에서의 문화·여가 인프라 상관계수 0.613, 교통인프라 상관계수 0.498, 삶의 만족도 상관계수 0.437로 문화·여가 인프라와 가장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여가 인프라 에서의 교통인프라 상관계수 0.549, 삶의 만족도 상관계수가 교육 인프라 0.322, 교통 인프라 에서의 삶의 만족도 상관계수 .435로 나타났다(표 4-3 참고).

【표 4-3】 인프라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구분 | 보건의료 인프라 | 교육 인프라 | 문화·여가 인프라 | 교통 인프라 | 삶의 만족도 |
|----------|-------------|-----------|--------------|-----------|-----------|
| 보건의료 인프라 | 1 | | | | |
| 교육 인프라 | .554** | 1 | | | |

| 구분 | 보건의료 인프라 | 교육 인프라 | 문화·여가 인프라 | 교통 인프라 | 삶의 만족도 |
|-----------|-------------|-----------|--------------|-----------|-----------|
| 문화·여가 인프라 | .513** | .613** | 1 | | |
| 교통 인프라 | .334** | .498** | .549** | 1 | |
| 삶의 만족도 | .226** | .437** | .322** | .435** | 1 |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

제2절 인프라별·생활만족도 특성

1. 보건의료 인프라

조사대상자의 보건의료 인프라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 53명(27.2%), 보건소 42명(21.5%), 병(의)원 64명(32.8%), 한방 병(의)원 12명(6.2%), 종합병원 24명(12.3%)로 병(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49명(25.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고).

【표 4-4】 보건의료 인프라 응답 현황

| 구분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보건진료소 | 53 | 27.2 |
| | 보건소(지소) | 42 | 21.5 |
| | 병(의)원 | 64 | 32.8 |
| | 한방 병(의)원 | 12 | 6.2 |
| | 종합병원 | 24 | 12.3 |
| | 전체 | 195 | 100.0 |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질병치료시 가장 큰 어려움 | 치료비 부담 | 31 | 15.9 |
| | 의료서비스 질 저하 | 28 | 14.4 |
| | 의료기관 찾기 어려움 | 49 | 25.1 |
| | 의료기관 이동 어려움 | 41 | 21.0 |
| | 환자 돌볼 사람 없음 | 15 | 7.7 |
| | 어려움 없음 | 31 | 15.9 |
| | 전체 | 195 | 100.0 |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60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 61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1명(5.6%), 다소 불만족 33명(16.9%), 보통 64명(32.8%), 대체로 만족 56명(28.7%), 매우 만족 31명(15.9%)으로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고).

【표 4-5】 보건 의료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8 | 4.1 |
| | 다소 불만족 | 56 | 28.7 |
| | 보통 | 60 | 30.8 |
| | 대체로 만족 | 46 | 23.6 |
| | 매우 만족 | 25 | 12.8 |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8 | 4.1 |
| | 다소 불만족 | 32 | 16.4 |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 만족도 | 보통 | 61 | 31.3 |
| | 대체로 만족 | 59 | 30.3 |
| | 매우 만족 | 35 | 17.9 |
| | 매우 불만족 | 11 | 5.6 |
| | 다소 불만족 | 33 | 16.9 |
| | 보통 | 64 | 32.8 |
| | 대체로 만족 | 56 | 28.7 |
| | 매우 만족 | 31 | 15.9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교차분석 결과(표 4-6) 병(의)원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53.1%, 연령에서는 60~65세가 34.4%, 학력은 초졸이 45.3%, 종교는 무교 39.1%, 거주기간은 50~70년 미만이 45.3%,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67.2%, 주거형태는 자가 92.2%, 평균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인구통계학적 요인-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교차분석

| 구 분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 | | | |
|-----|--------|----------------|----------------|----------------|----------------|----------------|-----------------|
| | | 보건 진료소 | 보건소 (지소) | 병(의)원 | 한방병 (의)원 | 종합병원 | 전체 |
| 성별 | 남성 | 28 (52.8%) | 22 (52.4%) | 34 (53.1%) | 3 (25.0%) | 17 (70.8%) | 104 (53.3%) |
| | 여성 | 25 (47.2%) | 20 (47.6%) | 30 (46.9%) | 9 (75.0%) | 7 (29.2%) | 91 (46.7%)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12 (22.6%) | 7 (16.7%) | 22 (34.4%) | 3 (25.0%) | 14 (58.3%) | 58 (29.7%) |
| | 66~70세 | 17 (32.1%) | 13 (31.0%) | 17 (26.6%) | 2 (16.7%) | 6 (25.0%) | 55 (28.2%) |

| 구 분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 | | | |
|----------|----------|----------------|----------------|-----------------------------|----------------|----------------|-----------------|
| | | 보건 진료소 | 보건소 (지소) | 병(의)원 | 한방병 (의)원 | 종합병원 | 전체 |
| | 71~75세 | 10 (18.9%) | 14 (33.3%) | 16 (25.0%) | 4 (33.3%) | 2 (8.3%) | 46 (23.6%) |
| | 76~80세 | 13 (24.5%) | 7 (16.7%) | 5 (7.8%) | 3 (25.0%) | 1 (4.2%) | 29 (14.9%) |
| | 81세이상 | 1 (1.9%) | 1 (2.4%) | 4 (6.3%) | - | 1 (4.2%) | 7 (3.6%)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22 (41.5%) | 17 (40.5%) | 17 (26.6%) | 5 (41.7%) | 1 (4.2%) | 62 (31.8%) |
| | 초졸 | 19 (35.8%) | 14 (33.3%) | 29 (45.3%) | 4 (33.3%) | 2 (8.3%) | 68 (34.9%) |
| | 중졸 | 10 (18.9%) | 8 (19.0%) | 7 (10.9%) | 1 (8.3%) | 3 (12.5%) | 29 (14.9%) |
| | 고졸 | 2 (3.8%) | 2 (4.8%) | 7 (10.9%) | 1 (8.3%) | 13 (54.2%) | 25 (12.8%) |
| | 전문대이상 | - | 1 (2.4%) | 4 (6.3%) | 1 (8.3%) | 5 (20.8%) | 11 (5.6%)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21 (39.6%) | 21 (50.0%) | 25 (39.1%) | 5 (41.7%) | 13 (54.2%) | 85 (43.6%) |
| | 기독교 | 11 (20.8%) | 11 (26.2%) | 13 (20.3%) | 4 (33.3%) | 7 (29.2%) | 46 (23.6%) |
| | 천주교 | 1 (1.9%) | 3 (7.1%) | 2 (3.1%) | - | 1 (4.2%) | 7 (3.6%) |
| | 불교 | 19 (35.8%) | 7 (16.7%) | 23 (35.9%) | 3 (25.0%) | 3 (12.5%) | 55 (28.2%) |
| | 기타 | 1 (1.9%) | - | 1 (1.6%) | - | - | 2 (1.0%)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 | - | 1 (1.6%) | - | 1 (4.2%) | 2 (1.0%) |
| | 10~30년미만 | - | - | 3 (4.7%) | 1 (8.3%) | 4 (16.7%) | 8 (4.1%) |
| | 30~50년미만 | 2 (3.8%) | 6 (14.3%) | 6 (9.4%) | 2 (16.7%) | 4 (16.7%) | 20 (10.3%) |
| | 50~70년미만 | 27 (50.9%) | 15 (35.7%) | 29 (45.3%) | 4 (33.3%) | 10 (41.7%) | 85 (43.6%) |

| 구 분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 | | | |
|------|--------------|----------------|----------------|-----------------------------|----------------|----------------|-----------------|
| | | 보건진료소 | 보건소(지소) | 병(의)원 | 한방병(의)원 | 종합병원 | 전체 |
| | 70년이상 | 24 (45.3%) | 21 (50.0%) | 25 (39.1%) | 5 (41.7%) | 5 (20.8%) | 80 (41.0%)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42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동거여부 | 혼자 | 14 (26.4%) | 18 (42.9%) | 21 (32.8%) | 3 (25.0%) | 2 (8.3%) | 58 (29.7%) |
| | 배우자 등 | 39 (73.6%) | 24 (57.1%) | 43 (67.2%) | 9 (75.0%) | 22 (91.7%) | 137 (70.3%)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주거형태 | 자가 | 49 (92.5%) | 35 (83.3%) | 59 (92.2%) | 10 (83.3%) | 23 (95.8%) | 176 (90.3%) |
| | 임대 | 3 (5.7%) | 4 (9.5%) | 4 (6.3%) | 1 (8.3%) | 1 (4.2%) | 13 (6.77%) |
| | 기타 | 1 (1.9%) | 3 (7.1%) | 1 (1.6%) | 1 (8.3%) | - | 6 (3.1%)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 평균소득 | 50만원 미만 | 8 (15.1%) | 8 (19.0%) | 11 (17.2%) | 1 (8.3%) | 1 (4.2%)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22 (41.5%) | 16 (38.1%) | 16 (25.0%) | 5 (41.7%) | 9 (37.5%)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18 (34.0%) | 12 (28.6%) | 30 (46.9%) | 2 (16.7%) | 8 (33.3%)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4 (7.5%) | 6 (14.3%) | 7 (10.9%) | 4 (33.3%) | 5 (20.8%)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1 (1.9%) | - | - | - | 1 (4.2%) | 2 (1.0%) |
| | 전체 | 53 (100.0%) | 42 (100.0%) | 64 (100.0%) | 12 (100.0%) | 24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질병 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차분석 결과(표 4-7) 적합 의료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59.2%, 연령에서는 60~65세가 36.7%, 학력은 초졸이 42.9%, 종교는 무교 51.0%, 거주기간은 50~70년 미만이 53.1%,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75.5%, 주거형태는 자가 91.8%, 평균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 인구통계학적 요인-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차분석

| 구 분 | |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 | | | | | | |
|-----|--------|-----------------|----------------|-----------------------------|----------------|----------------|----------------|-----------------|
| | | 치료비 부담 | 서비스 질 낮음 | 적합 의료기관 없음 | 의료기관 이동 어려움 | 환자 돌볼사람 없음 | 어려움 없음 | 전체 |
| 성별 | 남성 | 16 (51.6%) | 12 (42.9%) | 29 (59.2%) | 16 (39.0%) | 11 (73.3%) | 20 (64.5%) | 104 (53.3%) |
| | 여성 | 15 (48.4%) | 16 (57.1%) | 20 (40.8%) | 25 (61.0%) | 4 (26.7%) | 11 (35.5%) | 91 (46.7%)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7 (22.6%) | 13 (46.4%) | 18 (36.7%) | 8 (19.5%) | 4 (26.7%) | 8 (25.8%) | 58 (29.7%) |
| | 66~70세 | 8 (25.8%) | 6 (21.4%) | 16 (32.7%) | 11 (26.8%) | 4 (26.7%) | 10 (32.3%) | 55 (28.2%) |
| | 71~75세 | 8 (25.8%) | 6 (21.4%) | 8 (16.3%) | 8 (19.5%) | 4 (26.7%) | 12 (38.7%) | 46 (23.6%) |
| | 76~80세 | 7 (22.6%) | 3 (10.7%) | 5 (10.2%) | 11 (26.8%) | 2 (13.3%) | 1 (3.2%) | 29 (14.9%) |
| | 81세이상 | 1 (3.2%) | - | 2 (4.1%) | 3 (7.3%) | 1 (6.7%) | - | 7 (3.6%)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10 (32.3%) | 5 (17.9%) | 11 (22.4%) | 19 (46.3%) | 6 (40.0%) | 11 (35.5%) | 62 (31.8%) |
| | 초졸 | 11 (35.5%) | 13 (46.4%) | 21 (42.9%) | 16 (39.0%) | 2 (13.3%) | 5 (16.1%) | 68 (34.9%) |
| | 중졸 | 6 (19.4%) | 3 (10.7%) | 8 (16.3%) | 3 (7.3%) | 2 (13.3%) | 7 (22.6%) | 29 (14.9%) |
| | 고졸 | 1 (3.2%) | 6 (21.4%) | 6 (12.2%) | 3 (7.3%) | 3 (20.0%) | 6 (19.4%) | 25 (12.8%) |
| | 전문대이상 | 3 (9.7%) | 1 (3.6%) | 3 (6.1%) | - | 2 (13.3%) | 2 (6.5%) | 11 (5.6%)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12 (38.7%) | 10 (35.7%) | 25 (51.0%) | 12 (29.3%) | 7 (46.7%) | 19 (61.3%) | 85 (43.6%) |
| | 기독교 | 11 (35.5%) | 9 (32.1%) | 11 (22.4%) | 6 (14.6%) | 4 (26.7%) | 5 (16.1%) | 46 (23.6%) |
| | 천주교 | 1 (3.2%) | 1 (3.6%) | 1 (2.0%) | 3 (7.3%) | - | 1 (3.2%) | 7 (3.6%) |
| | 불교 | 7 (22.6%) | 8 (28.6%) | 11 (22.4%) | 20 (48.8%) | 4 (26.7%) | 5 (16.1%) | 55 (28.2%) |
| | 기타 | - | - | 1 (2.0%) | - | - | 1 (3.2%) | 2 (1.0%) |

| 구 분 | |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 | | | | | | |
|----------|--------------|-----------------|----------------|-----------------------------|----------------|----------------|----------------|-----------------|
| | | 치료비 부담 | 서비스 질 낮음 | 적합 의료기관 없음 | 의료기관 이동 어려움 | 환자 돌볼사람 없음 | 어려움 없음 | 전체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1 (3.2%) | 1 (3.6%) | - | - | - | - | 2 (1.0%) |
| | 10~30년미만 | - | 3 (10.7%) | 2 (4.1%) | 2 (4.9%) | - | 1 (3.2%) | 8 (4.1%) |
| | 30~50년미만 | 5 (16.1%) | 3 (10.7%) | 5 (10.2%) | 4 (9.8%) | 2 (13.3%) | 1 (3.2%) | 20 (10.3%) |
| | 50~70년미만 | 10 (32.3%) | 12 (42.9%) | 26 (53.1%) | 14 (34.1%) | 6 (40.0%) | 17 (54.8%) | 85 (43.6%) |
| | 70년이상 | 15 (48.4%) | 9 (32.1%) | 16 (32.7%) | 21 (51.2%) | 7 (46.7%) | 12 (38.7%) | 80 (41.0%)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동거 여부 | 혼자 | 14 (45.2%) | 4 (14.3%) | 12 (24.5%) | 22 (53.7%) | 3 (20.0%) | 3 (9.7%) | 58 (29.7%) |
| | 배우자 등 | 17 (54.8%) | 24 (85.7%) | 37 (75.5%) | 19 (46.3%) | 12 (80.0%) | 28 (90.3%) | 137 (70.3%)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주거 형태 | 자가 | 23 (74.2%) | 26 (92.9%) | 45 (91.8%) | 38 (92.7%) | 13 (86.7%) | 31 (100.0%) | 176 (90.3%) |
| | 임대 | 6 (19.4%) | 1 (3.6%) | 3 (6.1%) | 2 (4.9%) | 1 (6.7%) | - | 13 (6.77%) |
| | 기타 | 2 (6.5%) | 1 (3.6%) | 1 (2.0%) | 1 (2.4%) | 1 (6.7%) | - | 6 (3.1%)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평균 소득 | 50만원 미만 | 6 (19.4%) | 1 (3.6%) | 6 (12.2%) | 10 (24.4%) | 3 (20.0%) | 3 (9.7%)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14 (45.2%) | 9 (32.1%) | 13 (26.5%) | 18 (43.9%) | 3 (20.0%) | 11 (35.5%)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9 (29.0%) | 11 (39.3%) | 21 (42.9%) | 8 (19.5%) | 8 (53.3%) | 13 (41.9%)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2 (6.5%) | 6 (21.4%) | 8 (16.3%) | 5 (12.2%) | 1 (6.7%) | 4 (12.9%)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 | 1 (3.6%) | 1 (2.0%) | - | - | - | 2 (1.0%)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두 집단 이상으로 이에 따른 보건·의료 인프라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8) 연령, 학력, 동거여부에 따라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인구통계학적 요인-보건의료 인프라 ANOVA 분석

| 인구통계학적요인 | | 보건의료 인프라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성별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249 | .618 |
| | -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42 | 1.087 | .178 | .674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218 | .641 |
| 연령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970 | .425 |
| | 60~65세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41 | 1.109 | 2.629* | .036 |
| | 66~70세 | | 3.44 | 1.067 | | |
| | 71~75세 | | 3.72 | 1.004 | | |
| | 76~80세 | | 3.10 | 1.175 | | |
| | 81세이상 | | 2.57 | .535 | | |
| | 전체 | | 3.42 | 1.087 |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1.703 | .151 | |
| 학력 | 무학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26 | 1.070 | 2.418* | .050 |
| | 초졸 | | 2.91 | 1.004 | | |
| | 중졸 | | 3.03 | 1.180 | | |
| | 고졸 | | 3.12 | 1.092 | | |
| | 전문대이상 | | 3.91 | 1.221 | | |
| | 전체 | | 3.12 | 1.091 | | |
| | 무학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68 | .988 | 4.080** | .003 |
| | 초졸 | | 3.34 | 1.045 | | |
| | 중졸 | | 3.03 | 1.210 | | |
| | 고졸 | | 3.08 | 1.115 | | |

| 인구통계학적요인 | | 보건의료 인프라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 전문대이상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4.18 | .874 | 4.061** | .003 |
| | 전체 | | 3.42 | 1.087 | | |
| | 무학 | | 3.66 | .957 | | |
| | 초졸 | | 3.18 | 1.021 | | |
| | 중졸 | | 2.90 | 1.263 | | |
| | 고졸 | | 3.12 | 1.166 | | |
| | 전문대이상 | | 3.91 | 1.221 | | |
| | 전체 | | 3.32 | 1.104 | | |
| 종교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448 | .774 |
| | -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42 | 1.087 | 1.053 | .381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585 | .674 |
| 거주 기간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103 | .981 |
| | -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42 | 1.087 | .440 | .780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368 | .831 |
| 동거 여부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3.068 | .081 |
| | 혼자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12 | 1.125 | 6.228* | .013 |
| | 배우자 등 | | 3.54 | 1.050 | | |
| | 전체 | | 3.42 | 1.087 |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1.917 | .168 | |
| 주거 형태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074 | .929 |
| | -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42 | 1.087 | .655 | .520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503 | .605 |
| 평균 소득 | - |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 3.12 | 1.091 | .522 | .720 |
| | - |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 | 3.42 | 1.087 | 1.006 | .405 |
| | - |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 | 3.32 | 1.104 | .466 | .761 |

*p <.05, **p <.01, ***p <.001

2. 교육 인프라

조사대상자의 교육 인프라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은 농업기술교육 44명(22.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부담 9명(4.6%), 시간적 여유가 없음 61명(31.3%), 인근에 교육기관이 없음 14명(7.2%),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음 34명(17.4%), 교통 불편 21명(10.8%), 건강·나이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11명(5.6%), 관련정보 부족 45명(23.1%)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고).

【표 4-9】 교육 인프라 응답 현황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유무 | 농업기술교육 | 44 | 22.6 |
| | 문해교육 | 6 | 3.1 |
| | 인문교양교육 | 2 | 1.0 |
| | 정보화교육 | 11 | 5.6 |
| | 직업능력교육 | 5 | 2.6 |
| | 문화예술교육 | 13 | 6.7 |
| | 스포츠·건강교육 | 10 | 5.1 |
| | 기타 | 2 | 1.0 |
| | 받은적이 없다 | 102 | 52.3 |
| |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 비용부담 | 9 |
| 시간적 여유가 없음 | | 61 | 31.3 |
| 인근에 교육기관이 없음 | | 14 | 7.2 |
| 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없음 | | 34 | 17.4 |
| 교통 불편 | | 21 | 10.8 |
|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 불편 | | 11 | 5.6 |
| 관련정보 부족 | | 45 | 23.1 |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표 4-10)는 보통이 82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에서도 보통이 91명(46.7%)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8명(4.1%), 다소 불만족 26명(13.3%), 보통 91명(46.7%), 대체로 만족 49명(25.1%), 매우 만족 21명(10.8%)으로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고).

【표 4-10】 교육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1 | 5.6 |
| | 다소 불만족 | 33 | 16.9 |
| | 보통 | 82 | 42.1 |
| | 대체로 만족 | 59 | 30.3 |
| | 매우 만족 | 10 | 5.1 |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0 | 5.1 |
| | 다소 불만족 | 21 | 10.8 |
| | 보통 | 91 | 46.7 |
| | 대체로 만족 | 59 | 30.3 |
| | 매우 만족 | 14 | 7.2 |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8 | 4.1 |
| | 다소 불만족 | 26 | 13.3 |
| | 보통 | 91 | 46.7 |
| | 대체로 만족 | 49 | 25.1 |
| | 매우 만족 | 21 | 10.8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유무 교차분석 결과(표 4-11)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57.8%, 연령에서는 71~75세가 27.5%, 학력은 무학이 43.1%, 종교는 무교 41.2%, 거주기간은 70년 이상이 50.0%,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59.8%, 주거형태는 자가 91.2%, 평균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인구통계학적 요인-지난 1년간 평생교육 유무 교차분석

| 구 분 |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유무 | | | | | | | | | |
|-----|--------|----------------|---------------|---------------|----------------|---------------|----------------|----------------|---------------|-----------------|-----------------|
| | | 농업기술교육 | 문해교육 | 인문교양교육 | 정보화교육 | 직업능력교육 | 문화예술교육 | 건강교육 | 기타 | 받은적없다 | 전체 |
| 성별 | 남성 | 37 (84.1%) | 2 (33.3%) | 1 (50.0%) | 7 (63.6%) | 2 (40.0%) | 4 (30.8%) | 6 (60.0%) | 2 (100.0%) | 43 (42.2%) | 104 (53.3%) |
| | 여성 | 7 (15.9%) | 4 (66.7%) | 1 (50.0%) | 4 (36.4%) | 3 (60.0%) | 9 (69.2%) | 4 (40.0%) | - | 59 (57.8%) | 91 (46.7%)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13 (29.5%) | 1 (16.7%) | 2 (100.0%) | 3 (27.3%) | 2 (40.0%) | 9 (69.2%) | 3 (30.0%) | 1 (50.0%) | 24 (23.5%) | 58 (29.7%) |
| | 66~70세 | 18 (40.9%) | 1 (16.7%) | - | 5 (45.5%) | 1 (20.0%) | 1 (7.7%) | 3 (30.0%) | 1 (50.0%) | 25 (24.5%) | 55 (28.2%) |
| | 71~75세 | 9 (20.5%) | 1 (16.7%) | - | 3 (27.3%) | 1 (20.0%) | 1 (7.7%) | 3 (30.0%) | - | 28 (27.5%) | 46 (23.6%) |
| | 76~80세 | 4 (9.1%) | 3 (50.0%) | - | - | 1 (20.0%) | 2 (15.4%) | 1 (10.0%) | - | 18 (17.6%) | 29 (14.9%) |
| | 81세이상 | - | - | - | - | - | - | - | - | 7 (6.9%) | 7 (3.6%)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11 (25.0%) | 2 (33.3%) | - | 2 (18.2%) | 1 (20.0%) | 2 (15.4%) | - | - | 44 (43.1%) | 62 (31.8%) |
| | 초졸 | 17 (38.6%) | 1 (16.7%) | - | 1 (9.1%) | 1 (20.0%) | 3 (23.1%) | 5 (50.0%) | 1 (50.0%) | 39 (38.2%) | 68 (34.9%) |

| 구 분 |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유무 | | | | | | | | | |
|------|----------|----------------|---------------|---------------|----------------|---------------|----------------|----------------|---------------|-----------------------------|-----------------|
| | | 농업기술교육 | 문해교육 | 인문교양교육 | 정보화교육 | 직업능력교육 | 문화예술교육 | 건강교육 | 기타 | 받은적없다 | 전체 |
| | 중졸 | 8 (18.2%) | 3 (50.0%) | - | 3 (27.3%) | 1 (20.0%) | - | 1 (10.0%) | - | 13 (12.7%) | 29 (14.9%) |
| | 고졸 | 5 (11.4%) | - | 2 (100.2%) | 5 (45.5%) | 2 (40.0%) | 5 (38.5%) | 1 (10.0%) | - | 5 (4.9%) | 25 (12.8%) |
| | 전문대이상 | 3 (6.8%) | - | - | - | - | 3 (23.1%) | 3 (30.0%) | 1 (50.0%) | 1 (1.0%) | 11 (5.6%)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24 (54.5%) | 4 (66.7%) | - | 3 (27.3%) | 3 (60.0%) | 5 (38.5%) | 3 (30.0%) | 1 (50.0%) | 42 (41.2%) | 85 (43.6%) |
| | 기독교 | 8 (18.2%) | 1 (16.7%) | 1 (50.0%) | 4 (36.4%) | 1 (20.0%) | 5 (38.5%) | 3 (30.0%) | - | 23 (22.5%) | 46 (23.6%) |
| | 천주교 | 2 (4.5%) | - | - | - | - | 1 (7.7%) | - | - | 4 (3.9%) | 7 (3.6%) |
| | 불교 | 10 (22.7%) | 1 (16.7%) | 1 (50.0%) | 3 (27.3%) | 1 (20.0%) | 1 (7.7%) | 4 (40.0%) | 1 (50.0%) | 33 (32.4%) | 55 (28.2%) |
| | 기타 | - | - | - | 1 (9.1%) | - | 1 (7.7%) | - | - | - | 2 (1.0%)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2 (4.5%) | - | - | - | - | - | - | - | - | 2 (1.0%) |
| | 10~30년미만 | 1 (2.3%) | - | 2 (100.0%) | 2 (18.2%) | - | 2 (15.4%) | - | - | 1 (1.0%) | 8 (4.1%) |
| | 30~50년미만 | 3 (6.8%) | 1 (16.7%) | - | 1 (9.1%) | - | 2 (15.4%) | 3 (30.0%) | 1 (50.0%) | 9 (8.8%) | 20 (10.3%) |
| | 50~70년미만 | 24 (54.5%) | 3 (50.0%) | - | 4 (36.4%) | 3 (60.0%) | 6 (46.2%) | 3 (30.0%) | 1 (50.0%) | 41 (40.2%) | 85 (43.6%) |

| 구 분 |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유무 | | | | | | | | | 전체 |
|------|--------------|----------------|---------------|---------------|----------------|---------------|----------------|----------------|---------------|----------------------|-----------------|
| | | 농업기술교육 | 문해교육 | 인문교양교육 | 정보화교육 | 직업능력교육 | 문화예술교육 | 건강교육 | 기타 | 받은적없다 | |
| | 70년이상 | 14 (31.8%) | 2 (33.3%) | - | 4 (36.4%) | 2 (40.0%) | 3 (23.1%) | 4 (40%) | - | 51 (50.0%) | 80 (41.0%)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동거여부 | 혼자 | 4 (9.1%) | 4 (66.7%) | - | 2 (18.2%) | 2 (40.0%) | 2 (15.4%) | 3 (30.0%) | - | 41 (40.2%) | 58 (29.7%) |
| | 배우자 등 | 40 (90.9%) | 2 (33.3%) | 2 (100.0%) | 9 (81.8%) | 3 (60.0%) | 11 (84.6%) | 7 (70.0%) | 2 (100.0%) | 61 (59.8%) | 137 (70.3%)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주거형태 | 자가 | 39 (88.6%) | 5 (83.3%) | 2 (100.0%) | 11 (100.0%) | 3 (60.0%) | 12 (93.3%) | 9 (90.0%) | 2 (100.0%) | 93 (91.2%) | 176 (90.3%) |
| | 임대 | 3 (6.8%) | - | - | - | 1 (20.0%) | - | 1 (10.0%) | - | 8 (7.8%) | 13 (6.77%) |
| | 기타 | 2 (4.5%) | 1 (16.7%) | - | - | 1 (20.0%) | 1 (7.7%) | - | - | 1 (1.0%) | 6 (3.1%)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 평균소득 | 50만원 미만 | 1 (2.3%) | - | - | - | - | 1 (7.7%) | - | - | 27 (26.5%)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8 (18.2%) | 4 (66.7%) | - | 5 (45.5%) | 4 (80.0%) | 8 (61.5%) | 4 (40.0%) | - | 35 (34.3%)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21 (47.7%) | 1 (16.7%) | 1 (50.0%) | 5 (45.5%) | 1 (20.0%) | 4 (30.8%) | 4 (40.0%) | - | 33 (32.4%)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12 (27.3%) | 1 (16.7%) | 1 (50.0%) | 1 (9.1%) | - | - | 2 (20.0%) | 2 (100.0%) | 7 (6.9%)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2 (4.5%) | - | 1 (50.0%) | - | - | - | - | - | - | 2 (1.0%) |
| | 전체 | 44 (100.0%) | 6 (100.0%) | 2 (100.0%) | 11 (100.0%) | 5 (100.0%) | 13 (100.0%) | 10 (100.0%) | 2 (100.0%) | 102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차분석 결과(표 4-12)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52.2%, 연령에서는 66~70세가 36.1%, 학력은 초졸 이하가 68.8%, 종교는 무교가 41.0%, 거주기간은 50~70년 미만이 54.1%,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78.7%, 주거형태는 자가 91.8%, 평균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인구통계학적 요인-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차분석

| 구 분 | |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 | | | | | | 전체 |
|-----|--------|-----------------|----------------------|----------------|----------------|----------------|----------------|----------------|-----------------|
| | | 비용 부담 | 시간적 여유무 | 제공시설없음 | 프로그램없음 | 교통 불편 | 거동 불편 | 관련정보부족 | |
| 성별 | 남성 | 5 (55.6%) | 32 (52.5%) | 7 (50.0%) | 20 (58.8%) | 2 (23.8%) | 8 (72.7%) | 27 (60.0%) | 104 (53.3%) |
| | 여성 | 4 (44.4%) | 29 (47.5%) | 7 (50.0%) | 14 (41.2%) | 16 (76.2%) | 3 (27.3%) | 18 (40.0%) | 91 (46.7%)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4 (44.4%) | 17 (27.9%) | 4 (28.6%) | 13 (38.2%) | 4 (19.0%) | 2 (18.2%) | 14 (31.1%) | 58 (29.7%) |
| | 66~70세 | 2 (22.2%) | 22 (36.1%) | 5 (35.7%) | 5 (14.7%) | 4 (19.0%) | 2 (18.2%) | 15 (33.3%) | 55 (28.2%) |
| | 71~75세 | 1 (11.1%) | 12 (19.7%) | 2 (14.3%) | 11 (32.4%) | 6 (28.6%) | 4 (36.4%) | 10 (22.2%) | 46 (23.6%) |
| | 76~80세 | 2 (22.2%) | 10 (16.4%) | 1 (7.1%) | 5 (14.7%) | 5 (23.8%) | 2 (18.2%) | 4 (8.9%) | 29 (14.9%) |
| | 81세이상 | - | - | 2 (14.3%) | - | 2 (9.5%) | 1 (9.1%) | 2 (4.4%) | 7 (3.6%) |
| | 전체 | 44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1 (11.1%) | 21 (34.4%) | 2 (14.3%) | 13 (38.2%) | 10 (47.6%) | 5 (45.5%) | 10 (22.2%) | 62 (31.8%) |
| | 초졸 | 1 (11.1%) | 21 (34.4%) | 5 (35.7%) | 6 (17.6%) | 9 (42.9%) | 6 (54.5%) | 20 (44.4%) | 68 (34.9%) |
| | 중졸 | 3 (33.3%) | 10 (16.4%) | 2 (14.3%) | 6 (17.6%) | 1 (4.8%) | - | 7 (15.6%) | 29 (14.9%) |

| 구 분 | |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 | | | | | | 전체 |
|----------|----------|-----------------|-----------------------------|----------------|----------------|----------------|----------------|----------------|-----------------|
| | | 비용 부담 | 시간적 여유무 | 제공시설없음 | 프로그램없음 | 교통 불편 | 거동 불편 | 관련정보부족 | |
| | 고졸 | 4 (44.4%) | 7 (11.5%) | 2 (14.3%) | 6 (17.6%) | - | - | 6 (13.3%) | 25 (12.8%) |
| | 전문대이상 | - | 2 (3.3%) | 3 (21.4%) | 3 (8.8%) | 1 (4.8%) | - | 2 (4.4%) | 11 (5.6%)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4 (44.4%) | 25 (41.0%) | 6 (42.9%) | 17 (50.0%) | 7 (33.3%) | 5 (45.5%) | 21 (46.7%) | 85 (43.6%) |
| | 기독교 | 4 (44.4%) | 12 (19.7%) | 3 (21.4%) | 10 (29.4%) | 7 (33.3%) | - | 10 (22.2%) | 46 (23.6%) |
| | 천주교 | - | 5 (8.2%) | 1 (7.1%) | 1 (2.9%) | - | - | - | 7 (3.6%) |
| | 불교 | 1 (11.1%) | 19 (31.1%) | 4 (28.6%) | 6 (17.6%) | 6 (28.6%) | 5 (45.5%) | 14 (31.1%) | 55 (28.2%) |
| | 기타 | - | - | - | - | 1 (4.8%) | 1 (9.1%) | - | 2 (1.0%)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 | 1 (1.6%) | - | - | - | - | 1 (2.2%) | 2 (1.0%) |
| | 10~30년미만 | 1 (11.1%) | 3 (4.9%) | 1 (7.1%) | 2 (5.9%) | - | - | 1 (2.2%) | 8 (4.1%) |
| | 30~50년미만 | - | 6 (9.8%) | 3 (21.4%) | 2 (5.9%) | 4 (19.0%) | 1 (9.1%) | 4 (8.9%) | 20 (10.3%) |
| | 50~70년미만 | 5 (55.6%) | 33 (54.1%) | 3 (21.4%) | 14 (41.2%) | 7 (33.3%) | 5 (45.5%) | 18 (40.0%) | 85 (43.6%) |
| | 70년이상 | 3 (33.3%) | 18 (29.5%) | 7 (50.0%) | 16 (47.1%) | 10 (47.6%) | 5 (45.5%) | 21 (46.7%) | 80 (41.0%) |

| 구 분 | | 평생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 | | | | | | | |
|-------|--------------|-----------------|-----------------------------|----------------|----------------|----------------|----------------|----------------|-----------------|
| | | 비용 부담 | 시간적 여유무 | 제공시설없음 | 프로그램없음 | 교통 불편 | 거동 불편 | 관련정보부족 | 전체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동거 여부 | 혼자 | 3 (33.3%) | 13 (21.3%) | 4 (28.6%) | 8 (23.5%) | 15 (71.4%) | 2 (18.2%) | 13 (28.9%) | 58 (29.7%) |
| | 배우자 등 | 6 (66.7%) | 48 (78.7%) | 10 (71.4%) | 26 (76.5%) | 6 (28.6%) | 9 (81.8%) | 32 (71.1%) | 137 (70.3%)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주거 형태 | 자가 | 6 (66.7%) | 56 (91.8%) | 12 (85.7%) | 30 (88.2%) | 17 (81.0%) | 11 (100.0%) | 44 (97.8%) | 176 (90.3%) |
| | 임대 | 2 (22.2%) | 3 (4.9%) | 1 (7.1%) | 3 (8.8%) | 3 (14.3%) | - | 1 (2.2%) | 13 (6.77%) |
| | 기타 | 1 (11.1%) | 2 (3.3%) | 1 (7.1%) | 1 (2.9%) | 1 (4.8%) | - | - | 6 (3.1%)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 평균 소득 | 50만원 미만 | 1 (11.1%) | 5 (8.2%) | 2 (14.3%) | 6 (17.6%) | 5 (23.8%) | 1 (9.1%) | 9 (20.0%)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6 (66.7%) | 14 (23.0%) | 6 (42.9%) | 14 (41.2%) | 11 (52.4%) | 2 (18.2%) | 15 (33.3%)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2 (22.2%) | 29 (47.5%) | 3 (21.4%) | 10 (29.4%) | 5 (23.8%) | 7 (63.6%) | 14 (31.1%)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 | 13 (21.3%) | 3 (21.4%) | 3 (8.8%) | - | 1 (9.1%) | 6 (13.3%)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 | - | - | 1 (2.9%) | - | - | 1 (2.2%) | 2 (1.0%) |
| | 전체 | 9 (100.0%) | 61 (100.0%) | 14 (100.0%) | 34 (100.0%) | 21 (100.0%) | 11 (100.0%) | 45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두 집단 이상으로 이에 따른 교육 인프라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13 참고) 연령, 학력, 동거여부에 따라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 따라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인구통계학적 요인-교육 인프라 ANOVA 분석

| 인구통계학적요인 | | 교육 인프라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성별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12 | .944 | .236 | .628 |
| | -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24 | .923 | .155 | .695 |
| | -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3.25 | .960 | .183 | .669 |
| 연령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12 | .944 | 1.200 | .312 |
| | 60~65세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16 | .988 | 2.730* | .030 |
| | 66~70세 | | 3.24 | .942 | | |
| | 71~75세 | | 3.52 | .863 | | |
| | 76~80세 | | 3.14 | .693 | | |
| | 80세이상 | | 2.43 | .976 | | |
| | 전체 | | 3.24 | .923 | | |
| | 60~65세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3.26 | .928 | 2.460* | .047 |
| | 66~70세 | | 3.29 | .994 | | |
| | 71~75세 | | 3.43 | 1.003 | | |
| | 76~80세 | | 3.10 | .772 | | |
| 80세이상 | 2.29 | | .951 | | | |
| 전체 | 3.25 | | .960 | | | |
| 학력 | 무학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21 | .908 | 3.325* | .012 |
| | 초졸 | | 3.21 | .890 | | |
| | 중졸 | | 2.62 | .903 | | |
| | 고졸 | | 3.04 | .978 | | |
| | 전문대이상 | | 3.64 | 1.120 | | |
| | 전체 | | 3.12 | .944 | | |
| | 무학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37 | .773 | 2.953* | .021 |
| | 초졸 | | 3.35 | .894 | | |

| 인구통계학적요인 | | 교육 인프라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 중졸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2.79 | .978 | 2.756* | .029 |
| | 고졸 | | 3.00 | 1.000 | | |
| | 전문대이상 | | 3.45 | 1.214 | | |
| | 전체 | | 3.24 | .923 | | |
| | 무학 | | 3.29 | .876 | | |
| | 초졸 | | 3.41 | .934 | | |
| | 중졸 | | 2.83 | 1.037 | | |
| | 고졸 | | 3.04 | 1.020 | | |
| | 전문대이상 | | 3.64 | .924 | | |
| | 전체 | | 3.25 | .960 | | |
| 종교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944 | .068 | .229 | .922 |
| | -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923 | .066 | 1.774 | .136 |
| | -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960 | .069 | .730 | .572 |
| 거주기간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12 | .944 | .489 | .744 |
| | -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24 | .923 | .905 | .462 |
| | -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3.25 | .960 | .424 | .791 |
| 동거여부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12 | .944 | 2.855 | .093 |
| | 혼자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03 | .973 | 3.995* | .047 |
| | 배우자 등 | | 3.32 | .891 | | |
| | 전체 | | 3.24 | .923 | | |
| | 혼자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2.93 | .989 | 9.600** | .002 |
| | 배우자 등 | | 3.39 | .918 | | |
| 전체 | 3.25 | | .960 | | | |
| 주거형태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12 | .944 | .870 | .421 |
| | -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24 | .923 | .590 | .555 |
| | -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3.25 | .960 | .599 | .551 |
| 평균소득 | - |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 3.12 | .944 | .624 | .646 |
| | - |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3.24 | .923 | .635 | .638 |
| | - | 전반적 교육여건 만족도 | 3.25 | .960 | 1.301 | .271 |

*p <.05, **p <.01, ***p <.001

3. 문화·여가 인프라

조사대상자의 문화·여가 인프라 중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은 취미활동이 45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적 제약 요인으로는 적합한 시설 없음 32명(16.4%), 장비 및 재료구입 어려움 6명(3.1%), 관련교육 및 프로그램 없음 29명(14.9%), 강사 및 전문가 없음 17명(8.7%), 교통 불편 35명(17.9%), 관련정보 부족 38명(19.5%), 함께 할 사람 없음 25명(12.8%)으로 관련정보 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고).

【표 4-14】 문화·여가 인프라 응답 현황

| 구 분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 문화예술관람 | 21 | 10.8 |
| | 문화예술활동 | 22 | 11.3 |
| | 스포츠관람 | 4 | 2.1 |
| | 스포츠활동 | 3 | 1.5 |
| | 여행 | 39 | 20.0 |
| | 취미활동 | 45 | 23.1 |
| | 사회활동 | 18 | 9.2 |
| | 휴식 | 34 | 17.4 |
| | 기타 | 9 | 4.6 |
| | 지역적 제약요인 | 적합한 시설 없음 | 32 |
| 장비 및 재료 구입 어려움 | | 6 | 3.1 |
|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없음 | | 29 | 14.9 |
| 강사 및 전문가 없음 | | 17 | 8.7 |
| 교통이 불편 | | 35 | 17.9 |
| 관련정보 부족 | | 38 | 19.5 |
| 함께할 사람이 없음 | | 25 | 12.8 |
| 기타 | | 4 | 2.1 |
| 제약요인 없음 | | 9 | 4.6 |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82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 88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3명(6.7%), 다소 불만족 17명(8.7%), 보통 88명(45.1%), 대체로 만족 58명(29.7%), 매우 만족 19명(9.7%)으로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고).

【표 4-15】 문화·여가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시설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1 | 5.6 |
| | 다소 불만족 | 42 | 21.5 |
| | 보통 | 82 | 42.1 |
| | 대체로 만족 | 49 | 25.1 |
| | 매우 만족 | 11 | 5.6 |
| 서비스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1 | 5.6 |
| | 다소 불만족 | 24 | 12.3 |
| | 보통 | 88 | 45.1 |
| | 대체로 만족 | 60 | 30.8 |
| | 매우 만족 | 12 | 6.2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3 | 6.7 |
| | 다소 불만족 | 17 | 8.7 |
| | 보통 | 88 | 45.1 |
| | 대체로 만족 | 58 | 29.7 |
| | 매우 만족 | 19 | 9.7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가장 하고싶은 문화 여가활동 교차분석 결과(표 4-16) 취미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62.2%, 연령에서는 60~65세가 26.7%, 학력은 초졸이 44.4%, 종교는 무교 55.6%, 거주기간은 70년 이상이 53.3%,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64.4%, 주거형태는 자가 93.3%, 평균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인구통계학적 요인-가장 하고싶은 문화 여가활동 교차분석

| 구 분 | | 가장 하고싶은 문화 여가활동 | | | | | | | | | |
|-----|--------|-----------------|----------------|---------------|---------------|----------------|-----------------------|----------------|----------------|---------------|-----------------|
| | | 문화예 술포럼 | 문화예 술타 활동 | 스포츠 관람 | 스포츠 활동 | 여행 | 취미 활동 | 사회 활동 | 휴식 | 기타 | 전체 |
| 성별 | 남성 | 9 (42.9%) | 8 (36.4%) | 4 (100.0%) | 2 (66.7%) | 20 (51.3%) | 28 (62.2%) | 13 (72.2%) | 16 (47.1%) | 4 (44.4%) | 104 (53.3%) |
| | 여성 | 12 (57.1%) | 14 (63.6%) | - | 1 (33.3%) | 19 (48.7%) | 17 (37.8%) | 5 (27.8%) | 18 (52.9%) | 5 (55.6%) | 91 (46.7%)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12 (57.1%) | 13 (59.1%) | 1 (25.0%) | 1 (33.3%) | 10 (25.6%) | 12 (26.7%) | 3 (16.7%) | 4 (11.8%) | 2 (22.2%) | 58 (29.7%) |
| | 66~70세 | 3 (14.3%) | 6 (27.3%) | 1 (25.0%) | 2 (66.7%) | 11 (28.2%) | 10 (22.2%) | 6 (33.3%) | 13 (38.2%) | 3 (33.3%) | 55 (28.2%) |
| | 71~75세 | 2 (9.5%) | 2 (9.1%) | 1 (25.0%) | - | 12 (30.8%) | 11 (24.4%) | 5 (27.8%) | 11 (32.4%) | 2 (22.2%) | 46 (23.6%) |
| | 76~80세 | 3 (14.3%) | 1 (4.5%) | 1 (25.0%) | - | 3 (7.7%) | 10 (22.2%) | 3 (16.7%) | 6 (17.6%) | 2 (22.2%) | 29 (14.9%) |
| | 81세이상 | 1 (4.8%) | - | - | - | 3 (7.7%) | 2 (4.4%) | 1 (5.6%) | - | - | 7 (3.6%)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1 (4.8%) | 1 (4.5%) | 1 (25.0%) | 1 (33.3%) | 17 (43.6%) | 13 (28.9%) | 7 (38.9%) | 17 (50.0%) | 4 (44.4%) | 62 (31.8%) |
| | 초졸 | 5 (23.8%) | 9 (40.9%) | 1 (25.0%) | - | 13 (33.3%) | 20 (44.4%) | 7 (38.9%) | 10 (29.4%) | 3 (33.3%) | 68 (34.9%) |
| | 중졸 | 6 (28.6%) | 3 (13.6%) | - | 2 (66.7%) | 3 (7.7%) | 7 (15.6%) | 1 (5.6%) | 6 (17.6%) | 1 (11.1%) | 29 (14.9%) |

| 구 분 | | 가장 하고싶은 문화 여가활동 | | | | | | | | | |
|----------|----------|-----------------|----------------|---------------|---------------|----------------|-----------------------------|----------------|----------------|---------------|-----------------|
| | | 문화예 술포럼 | 문화예 술헌동 | 스포츠 관람 | 스포츠 활동 | 여행 | 취미 활동 | 사회 활동 | 휴식 | 기타 | 전체 |
| | 고졸 | 8 (38.1%) | 4 (18.2%) | 1 (25.0%) | - | 3 (7.7%) | 4 (8.9%) | 3 (16.7%) | 1 (2.9%) | 1 (11.1%) | 25 (12.8%) |
| | 전문대이상 | 1 (4.8%) | 5 (22.7%) | 1 (25.0%) | - | 3 (7.7%) | 1 (2.2%) | - | - | - | 11 (5.6%)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8 (38.1%) | 7 (31.8%) | 3 (75.0%) | 1 (33.3%) | 15 (38.5%) | 25 (55.6%) | 10 (55.6%) | 12 (35.3%) | 4 (44.4%) | 85 (43.6%) |
| | 기독교 | 9 (42.9%) | 10 (45.5%) | - | 1 (33.3%) | 7 (17.9%) | 9 (20.0%) | 2 (11.1%) | 5 (14.7%) | 3 (33.3%) | 46 (23.6%) |
| | 천주교 | 1 (4.8%) | 1 (4.5%) | 1 (25.0%) | - | 2 (5.1%) | - | - | 2 (5.9%) | - | 7 (3.6%) |
| | 불교 | 3 (14.3%) | 3 (13.6%) | - | 1 (33.3%) | 14 (35.9%) | 11 (24.4%) | 6 (33.3%) | 15 (44.1%) | 2 (22.2%) | 55 (28.2%) |
| | 기타 | - | 1 (4.5%) | - | - | 1 (2.6%) | - | - | - | - | 2 (1.0%)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 | 1 (4.5%) | - | - | - | 1 (2.2%) | - | - | - | 2 (1.0%) |
| | 10~30년미만 | 2 (9.5%) | 4 (18.2%) | - | - | 1 (2.6%) | 1 (2.2%) | - | - | - | 8 (4.1%) |
| | 30~50년미만 | 3 (14.3%) | 4 (18.2%) | 2 (50.0%) | - | 5 (12.8%) | 2 (4.4%) | 1 (5.6%) | 3 (8.8%) | - | 20 (10.3%) |
| | 50~70년미만 | 10 (47.6%) | 10 (45.5%) | 1 (25.0%) | 3 (100.0%) | 18 (46.2%) | 17 (37.8%) | 5 (27.8%) | 17 (50.0%) | 41 (44.4%) | 85 (43.6%) |
| | 70년이상 | 6 (28.6%) | 3 (3.6%) | 1 (25.0%) | - | 15 (38.5%) | 24 (53.3%) | 12 (66.7%) | 14 (41.2%) | 5 (55.6%) | 80 (41.0%)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구 분 | | 가장 하고싶은 문화 여가활동 | | | | | | | | | |
|----------|--------------|-----------------|----------------|---------------|---------------|----------------|-----------------------|----------------|----------------|---------------|-----------------|
| | | 문화예 술품관람 | 문화예 술행동 | 스포츠 관람 | 스포츠 활동 | 여행 | 취미 활동 | 사회 활동 | 휴식 | 기타 | 전체 |
| 동거 여부 | 혼자 | 5 (23.8%) | 3 (13.6%) | 1 (25.0%) | 1 (33.3%) | 10 (25.6%) | 16 (35.6%) | 8 (44.4%) | 13 (38.2%) | 1 (11.1%) | 58 (29.7%) |
| | 배우자 등 | 16 (76.2%) | 19 (86.4%) | 3 (75.0%) | 2 (66.7%) | 29 (74.4%) | 29 (64.4%) | 10 (55.6%) | 21 (61.8%) | 8 (88.9%) | 137 (70.3%)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주거 형태 | 자가 | 17 (81.0%) | 19 (86.4%) | 4 (100.0%) | 2 (66.7%) | 36 (92.3%) | 42 (93.3%) | 15 (83.3%) | 32 (94.1%) | 9 (100.0%) | 176 (90.3%) |
| | 임대 | 3 (14.3%) | 2 (9.1%) | - | 1 (33.3%) | 1 (2.6%) | 2 (4.4%) | 2 (11.1%) | 2 (5.9%) | - | 13 (6.77%) |
| | 기타 | 1 (4.8%) | 1 (4.5%) | - | - | 2 (5.1%) | 1 (2.2%) | 1 (5.6%) | - | - | 6 (3.1%)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 평균 소득 | 50만원 미만 | 3 (14.3%) | 1 (4.5%) | - | - | 5 (12.8%) | 8 (17.8%) | 3 (16.7%) | 8 (23.5%) | 1 (11.1%)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10 (47.6%) | 8 (36.4%) | - | 1 (33.3%) | 11 (28.2%) | 15 (33.3%) | 6 (33.3%) | 14 (41.2%) | 3 (33.3%)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7 (33.3%) | 9 (40.9%) | 2 (50.0%) | 2 (66.7%) | 18 (46.2%) | 13 (28.9%) | 7 (38.9%) | 7 (20.6%) | 5 (55.6%)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1 (4.8%) | 4 (18.2%) | 2 (50.0%) | - | 4 (10.3%) | 9 (20.0%) | 1 (5.6%) | 5 (14.7%) | -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 | - | - | - | 1 (2.6%) | - | 1 (5.6%) | - | - | 2 (1.0%) |
| | 전체 | 21 (100.0%) | 22 (100.0%) | 4 (100.0%) | 3 (100.0%) | 39 (100.0%) | 45 (100.0%) | 18 (100.0%) | 34 (100.0%) | 9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지역적 제약요인 교차분석 결과(표 4-17) 관련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52.6%, 연령에서는 71~75세가 34.2%, 학력은 무학이 47.4%, 종교는 무교 42.1%, 거주기간은 70년 이상이 57.9%,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68.4%, 주거형태는 자가 89.5%, 평균 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인구통계학적 요인-지역적 제약요인 교차분석

| 구 분 | | 지역적 제약요인 | | | | | | | | | |
|-----|--------|----------------|---------------|----------------|----------------|----------------|-----------------------|----------------|---------------|---------------|-----------------|
| | | 적합시 설없음 | 장비구입 어려움 | 프로그 램없음 | 전문가 없음 | 교통 불편 | 관련정 보부족 | 동행자 없음 | 기타 | 제약요 인없음 | 전체 |
| 성별 | 남성 | 10 (31.3%) | 4 (66.7%) | 18 (62.1%) | 8 (47.1%) | 20 (57.1%) | 20 (52.6%) | 13 (52.0%) | 3 (75.0%) | 8 (88.9%) | 104 (53.3%) |
| | 여성 | 22 (68.8%) | 2 (33.3%) | 11 (37.9%) | 9 (52.9%) | 15 (42.9%) | 18 (47.4%) | 12 (48.0%) | 1 (25.0%) | 1 (11.1%) | 91 (46.7%)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11 (34.4%) | 2 (33.3%) | 10 (34.5%) | 8 (47.1%) | 6 (17.1%) | 9 (23.7%) | 10 (40.0%) | - | 2 (22.2%) | 58 (29.7%) |
| | 66~70세 | 7 (21.9%) | 2 (33.3%) | 7 (24.1%) | 4 (23.5%) | 14 (40.0%) | 7 (18.4%) | 9 (36.0%) | 2 (50.0%) | 3 (33.3%) | 55 (28.2%) |
| | 71~75세 | 4 (12.5%) | 1 (16.7%) | 10 (34.5%) | 2 (11.8%) | 9 (25.7%) | 13 (34.2%) | 2 (8.0%) | 2 (50.0%) | 3 (33.3%) | 46 (23.6%) |
| | 76~80세 | 7 (21.9%) | 1 (16.7%) | 2 (6.9%) | 3 (17.6%) | 5 (14.3%) | 7 (18.4%) | 3 (16.7%) | - | 1 (11.1%) | 29 (14.9%) |
| | 81세이상 | 3 (9.4%) | - | - | - | 1 (2.9%) | 2 (5.3%) | 1 (5.6%) | - | - | 7 (3.6%)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9 (28.1%) | 1 (16.7%) | 8 (27.6%) | 5 (29.4%) | 13 (37.1%) | 18 (47.4%) | 5 (20.0%) | 1 (25.0%) | 2 (22.2%) | 62 (31.8%) |
| | 초졸 | 11 (34.4%) | 1 (16.7%) | 13 (44.8%) | 5 (29.4%) | 17 (48.6%) | 13 (34.2%) | 5 (20.0%) | 1 (25.0%) | 2 (22.2%) | 68 (34.9%) |
| | 중졸 | 5 (15.6%) | 1 (16.7%) | 4 (13.8%) | 1 (5.9%) | 3 (8.6%) | 4 (10.5%) | 6 (24.0%) | 2 (50.0%) | 3 (33.3%) | 29 (14.9%) |
| | 고졸 | 6 (18.8%) | - | 2 (6.9%) | 4 (23.5%) | 1 (2.9%) | 3 (7.9%) | 7 (28.0%) | - | 2 (22.2%) | 25 (12.8%) |
| | 전문대이상 | 1 (3.1%) | 3 (50.0%) | 2 (6.9%) | 2 (11.8%) | 1 (2.9%) | - | 2 (8.0%) | - | - | 11 (5.6%)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10 (31.3%) | 1 (16.7%) | 13 (44.8%) | 7 (41.2%) | 16 (45.7%) | 16 (42.1%) | 14 (56.0%) | 2 (50.0%) | 6 (66.7%) | 85 (43.6%) |
| | 기독교 | 10 (31.3%) | 1 (16.7%) | 5 (17.2%) | 6 (35.3%) | 7 (20.0%) | 8 (21.4%) | 5 (20.0%) | 2 (50.0%) | 2 (22.2%) | 46 (23.6%) |
| | 천주교 | 2 (6.3%) | 2 (33.3%) | 1 (3.4%) | 1 (5.9%) | 1 (2.9%) | - | - | - | - | 7 (3.6%) |

| 구 분 | 지역적 제약요인 | | | | | | | | | | |
|----------|----------------|----------------|----------------|----------------|----------------|----------------|-----------------------------|----------------|---------------|-----------------|-----------------|
| | 적합시 설없음 | 장비구입 어려움 | 프로그 램없음 | 전문가 없음 | 교통 불편 | 관련정 보부족 | 동행자 없음 | 기타 | 계약요 인없음 | 전체 | |
| 불교 | 9 (28.1%) | 2 (33.3%) | 10 (34.5%) | 3 (17.6%) | 11 (31.4%) | 13 (34.2%) | 6 (24.0%) | - | 1 (11.1%) | 55 (28.2%) | |
| | 1 (3.1%) | - | - | - | - | 1 (2.6%) | - | - | - | 2 (1.0%) | |
|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 | - | 1 (3.4%) | - | - | 1 (2.6%) | - | - | 2 (1.0%) | |
| | 10~30년미만 | 2 (6.3%) | - | 1 (3.4%) | 2 (11.8%) | - | 1 (2.6%) | 2 (8.0%) | - | 8 (4.1%) | |
| | 30~50년미만 | 6 (18.8%) | 3 (50.0%) | 2 (6.9%) | - | 3 (8.6%) | 1 (2.6%) | 5 (20.0%) | - | 20 (10.3%) | |
| | 50~70년미만 | 12 (37.5%) | 3 (50.0%) | 12 (41.4%) | 10 (58.8%) | 19 (54.3%) | 13 (34.2%) | 10 (40.0%) | 2 (50.0%) | 4 (44.4%) | 85 (43.6%) |
| | 70년이상 | 12 (37.5%) | - | 13 (44.8%) | 5 (29.4%) | 13 (37.1%) | 22 (57.9%) | 8 (32.0%) | 2 (50.0%) | 5 (55.6%) | 80 (41.0%)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동거 여부 | 혼자 | 13 (40.6%) | 1 (16.7%) | 6 (20.7%) | 1 (5.9%) | 15 (42.9%) | 12 (31.6%) | 7 (28.0%) | 1 (25.0%) | 2 (22.2%) | 58 (29.7%) |
| | 배우자 등 | 19 (59.4%) | 5 (83.3%) | 23 (79.3%) | 16 (94.1%) | 20 (57.1%) | 26 (68.4%) | 18 (72.0%) | 3 (75.0%) | 7 (77.8%) | 137 (70.3%)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주거 형태 | 자가 | 28 (87.5%) | 5 (83.3%) | 24 (82.8%) | 17 (100.0%) | 32 (91.4%) | 34 (89.5%) | 23 (92.0%) | 4 (100.0%) | 9 (100.0%) | 176 (90.3%) |
| | 임대 | 2 (6.3%) | - | 5 (17.2%) | - | 2 (5.7%) | 2 (5.3%) | 2 (8.0%) | - | - | 13 (6.77%) |
| | 기타 | 2 (6.3%) | 1 (16.7%) | - | - | 1 (2.9%) | 2 (5.3%) | - | - | - | 6 (3.1%)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 평균 소득 | 50만원 미만 | 6 (18.8%) | - | 3 (10.3%) | 1 (5.9%) | 7 (20.0%) | 8 (21.1%) | 3 (12.0%) | 1 (25.0%) | -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11 (34.4%) | - | 9 (31.0%) | 6 (35.3%) | 9 (25.7%) | 16 (42.1%) | 12 (48.0%) | 1 (25.0%) | 4 (44.4%)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10 (31.3%) | 3 (50.0%) | 12 (41.4%) | 8 (47.1%) | 15 (42.9%) | 10 (26.3%) | 7 (28.0%) | 1 (25.0%) | 4 (44.4%)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5 (15.6%) | 3 (50.0%) | 5 (17.2%) | 1 (5.9%) | 4 (11.4%) | 4 (10.5%) | 2 (8.0%) | 1 (25.0%) | 1 (11.1%)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 | - | - | 1 (5.9%) | - | - | 1 (4.0%) | - | - | 2 (1.0%) |
| | 전체 | 32 (100.0%) | 6 (100.0%) | 29 (100.0%) | 17 (100.0%) | 35 (100.0%) | 38 (100.0%) | 25 (100.0%) | 4 (100.0%) | 9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두 집단 이상으로 이에 따른 문화·여가 인프라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18) 연령, 학력, 동거여부에 따라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인구통계학적 요인-문화·여가 인프라 ANOVA 분석

| 인구통계학적요인 | | 문화·여가 인프라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성별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166 | .684 |
| | - | 서비스 만족도 | 3.19 | .932 | .931 | .336 |
| |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7 | .986 | .108 | .742 |
| 연령 | 60~65세 | 시설 만족도 | 2.97 | 1.025 | 4.296** | .002 |
| | 66~70세 | | 3.05 | .911 | | |
| | 71~75세 | | 3.15 | .988 | | |
| | 76~80세 | | 3.28 | .591 | | |
| | 80세 이상 | | 1.71 | .951 | | |
| | 전체 | | 3.04 | .960 | | |
| | 60~65세 | 서비스 만족도 | 3.26 | 1.018 | 5.330*** | .000 |
| | 66~70세 | | 3.18 | .884 | | |
| | 71~75세 | | 3.37 | .878 | | |
| | 76~80세 | | 3.17 | .602 | | |
| | 80세 이상 | | 1.71 | .951 | | |
| | 전체 | | 3.19 | .932 | | |
| | 60~65세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2 | 1.027 | 5.411*** | .000 |
| | 66~70세 | | 3.33 | .883 | | |
| | 71~75세 | | 3.48 | 1.027 | | |
| | 76~80세 | | 3.31 | .712 | | |
| | 80세 이상 | | 1.71 | .951 | | |

| 인구통계학적요인 | | 문화·여가 인프라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전체 | | 3.27 | .986 | | |
| 학력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2.397 | .052 |
| | - | 서비스 만족도 | 3.19 | .932 | 2.081 | .085 |
| | 무학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58 | .860 | 3.668** | .007 |
| | 초졸 | | 3.25 | .920 | | |
| | 중졸 | | 2.93 | 1.100 | | |
| | 고졸 | | 2.88 | 1.013 | | |
| | 전문대이상 | | 3.45 | 1.214 | | |
| | 전체 | | 3.27 | .986 | | |
| 종교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262 | .902 |
| | - | 서비스 만족도 | 4.00 | 1.414 | .415 | .798 |
| |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7 | .986 | .374 | .827 |
| 거주기간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246 | .912 |
| | - | 서비스 만족도 | 3.19 | .932 | .546 | .702 |
| |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7 | .986 | .540 | .706 |
| 동거여부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2.211 | .139 |
| | - | 서비스 만족도 | 3.19 | .932 | 1.510 | .221 |
| |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7 | .986 | 2.954 | .087 |
| 주거형태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462 | .631 |
| | - | 서비스 만족도 | 3.19 | .932 | 2.335 | .100 |
| |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7 | .986 | 1.380 | .254 |
| 평균소득 | - | 시설 만족도 | 3.04 | .960 | .748 | .560 |
| | - | 서비스 만족도 | 3.00 | .000 | 1.879 | .116 |
| | - | 전반적 여건 만족도 | 3.27 | .986 | 1.298 | .272 |

*p <.05, **p <.01, ***p <.001

4. 교통 인프라

조사대상자의 교통 인프라 중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은 대중교통이 84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버스 오래 기다림 69명(35.4%), 보행자도로 미설치 45명(23.1%), 고르지 못한 도로 26명(13.3%), 차량이 많아 위험 22명(11.3%), 버스정류장 거리가 멀 31명(15.9%)으로 버스 오래 기다려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고).

【표 4-19】 교통 인프라 응답 현황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 승용차(자가용) | 54 | 27.7 |
| | 대중교통 | 84 | 43.1 |
| | 도보 | 32 | 16.4 |
| | 오토바이 | 20 | 10.3 |
| | 자전거 | 4 | 2.1 |
| | 기타 | 1 | 0.5 |
|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버스 오래 기다림 | 69 | 35.4 |
| | 보행자도로 미설치 | 45 | 23.1 |
| | 고르지 못한 도로 | 26 | 13.3 |
| |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 22 | 11.3 |
| | 버스정류장 거리가 멀 | 31 | 15.9 |
| | 기타 | 2 | 1.0 |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는 다소 불만족이 88명(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66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8명(9.2%), 다소 불만족 56명(28.7%), 보통 77명(39.5%), 대체로 만족 34명(17.4%), 매우 만족 10명(5.1%)으로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표 4-20】 교통 인프라 만족도 응답 현황

| 구 분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22 | 11.3 |
| | 다소 불만족 | 88 | 45.1 |
| | 보통 | 52 | 26.7 |
| | 대체로 만족 | 26 | 13.3 |
| | 매우 만족 | 7 | 3.6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7 | 8.7 |
| | 다소 불만족 | 60 | 30.8 |
| | 보통 | 66 | 33.8 |
| | 대체로 만족 | 45 | 23.1 |
| | 매우 만족 | 7 | 3.6 |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8 | 9.2 |
| | 다소 불만족 | 56 | 28.7 |
| | 보통 | 77 | 39.5 |
| | 대체로 만족 | 34 | 17.4 |
| | 매우 만족 | 10 | 5.1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교차분석 결과(표 4-21)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66.7%, 연령에서는 66~70세가 27.4%, 학력은 무학이 40.5%, 종교는 무교 36.9%, 거주기간은 50~70년 미만이 44.0%,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85.7%, 주거형태는 자가 86.9%, 평균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인구통계학적 요인-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교차분석

| 구 분 | |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 | | | | | |
|-----|--------|----------------|-----------------------------|----------------|----------------|---------------|---------------|-----------------|
| | | 승용차 (자가용) | 대중 교통 | 도보 | 오토 바이 | 자전거 | 기타 | 전체 |
| 성별 | 남성 | 45 (83.3%) | 28 (33.3%) | 9 (28.1%) | 19 (95.0%) | 3 (75.0%) | - | 104 (53.3%) |
| | 여성 | 9 (16.7%) | 56 (66.7%) | 23 (71.9%) | 1 (5.0%) | 1 (25.0%) | 1 (100.0%) | 91 (46.7%)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49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27 (50.0%) | 19 (22.6%) | 10 (31.3%) | 1 (5.0%) | 1 (25.0%) | - | 58 (29.7%) |
| | 66~70세 | 17 (31.5%) | 23 (27.4%) | 6 (18.8%) | 8 (40.0%) | 1 (25.0%) | - | 55 (28.2%) |
| | 71~75세 | 8 (14.8%) | 19 (22.6%) | 8 (25.0%) | 8 (40.0%) | 2 (50.0%) | 1 (100.0%) | 46 (23.6%) |
| | 76~80세 | 2 (3.7%) | 20 (23.8%) | 4 (12.5%) | 3 (15.0%) | - | - | 29 (14.9%) |
| | 81세이상 | - | 3 (3.6%) | 4 (12.5%) | - | - | - | 7 (3.6%)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32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6 (11.1%) | 34 (40.5%) | 13 (40.6%) | 6 (30.0%) | 2 (50.0%) | 1 (100.0%) | 62 (31.8%) |
| | 초졸 | 16 (29.6%) | 32 (38.1%) | 15 (46.9%) | 5 (25.0%) | - | - | 68 (34.9%) |

| 구 분 | |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 | | | | | |
|----------|----------|----------------|-----------------------------|----------------|----------------|---------------|---------------|-----------------|
| | | 승용차 (자가용) | 대중 교통 | 도보 | 오토 바이 | 자전거 | 기타 | 전체 |
| | 중졸 | 9 (16.7%) | 9 (10.7%) | 2 (6.3%) | 7 (35.0%) | 2 (50.0%) | - | 29 (14.9%) |
| | 고졸 | 16 (29.6%) | 6 (7.1%) | 1 (3.1%) | 2 (10.0%) | - | - | 25 (12.8%) |
| | 전문대이상 | 7 (13.0%) | 3 (3.6%) | 1 (3.1%) | - | - | - | 11 (5.6%)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32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30 (55.6%) | 31 (36.9%) | 11 (34.4%) | 12 (60.0%) | 1 (25.0%) | - | 85 (43.6%) |
| | 기독교 | 8 (14.8%) | 22 (26.2%) | 10 (31.3%) | 4 (20.0%) | 1 (25.0%) | 1 (100.0%) | 46 (23.6%) |
| | 천주교 | 4 (7.4%) | 2 (2.4%) | 1 (3.1%) | - | - | - | 7 (3.6%) |
| | 불교 | 12 (22.2%) | 29 (34.5%) | 10 (31.3%) | 2 (10.0%) | 2 (50.0%) | - | 55 (28.2%) |
| | 기타 | - | - | - | 2 (10.0%) | - | - | 2 (1.0%)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32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2 (3.7%) | - | - | - | - | - | 2 (1.0%) |
| | 10~30년미만 | 7 (13.0%) | 1 (1.2%) | - | - | - | - | 8 (4.1%) |
| | 30~50년미만 | 6 (11.1%) | 11 (13.1%) | 3 (9.4%) | - | - | - | 20 (10.3%) |
| | 50~70년미만 | 27 (50.0%) | 37 (44.0%) | 12 (37.5%) | 7 (35.0%) | 2 (50.0%) | - | 85 (43.6%) |
| | 70년이상 | 12 (22.2%) | 35 (41.7%) | 17 (53.1%) | 13 (65.0%) | 2 (50.0%) | 1 (100.0%) | 80 (41.0%) |

| 구 분 | |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 | | | | | | |
|----------|--------------|----------------|-----------------------------|----------------|----------------|----------------|----------------|-----------------|
| | | 승용차 (자가용) | 대중 교통 | 도보 | 오토 바이 | 자전거 | 기타 | 전체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32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 동거 여부 | 혼자 | 4 (7.4%) | 4 (14.3%) | 12 (24.5%) | 22 (53.7%) | 3 (20.0%) | 3 (9.7%) | 58 (29.7%) |
| | 배우자 등 | 50 (92.6%) | 24 (85.7%) | 37 (75.5%) | 19 (46.3%) | 12 (80.0%) | 28 (90.3%) | 137 (70.3%) |
| | 전체 | 31 (100.0%) | 28 (100.0%) | 49 (100.0%) | 41 (100.0%) | 15 (100.0%) | 31 (100.0%) | 195 (100.0%) |
| 주거 형태 | 자가 | 53 (98.1%) | 73 (86.9%) | 28 (87.5%) | 18 (90.0%) | 3 (75.0%) | 1 (100.0%) | 176 (90.3%) |
| | 임대 | 1 (1.9%) | 7 (8.3%) | 3 (9.4%) | 1 (5.0%) | 1 (25.0%) | - | 13 (6.77%) |
| | 기타 | - | 4 (4.8%) | 1 (3.1%) | 1 (5.0%) | - | - | 6 (3.1%)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32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 평균 소득 | 50만원 미만 | 1 (1.9%) | 14 (16.7%) | 11 (34.4%) | 2 (10.0%) | 1 (25.0%) | -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14 (25.9%) | 37 (44.0%) | 9 (28.1%) | 7 (35.0%) | - | 1 (100.0%)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20 (37.0%) | 27 (32.1%) | 11 (34.4%) | 9 (45.0%) | 3 (75.0%) | -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17 (31.5%) | 6 (7.1%) | 1 (3.1%) | 2 (10.0%) | - | -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2 (3.7%) | - | - | - | - | - | 2 (1.0%) |
| | 전체 | 54 (100.0%) | 84 (100.0%) | 32 (100.0%) | 20 (100.0%) | 4 (100.0%) | 1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교차분석 결과(표 4-22) 버스를 오래 기다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56.5%, 연령에서는 60~65세가 27.5%, 학력은 초졸이 37.7%, 종교는 무교 39.1%, 거주기간은 70년 이상이 46.4%, 동거여부는 배우자 등이 63.8%, 주거형태는 자가 87.0%, 평균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인구통계학적 요인-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교차분석

| 구 분 | |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 | | | | 전체 |
|-----|--------|-----------------------|----------------|----------------|----------------|----------------|---------------|-----------------|
| | | 버스오래 기다림 | 보행도로 미설치 | 고르지못한도로 | 차량이 많아위험 | 버스정류장거리먼 | 기타 | |
| 성별 | 남성 | 30 (43.5%) | 25 (55.6%) | 17 (65.4%) | 16 (72.7%) | 16 (51.6%) | - | 104 (53.3%) |
| | 여성 | 39 (56.5%) | 20 (44.4%) | 9 (34.6%) | 6 (27.3%) | 15 (48.4%) | 2 (100.0%) | 91 (46.7%)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연령 | 60~65세 | 19 (27.5%) | 7 (15.6%) | 14 (53.8%) | 7 (31.8%) | 10 (32.3%) | 1 (50.0%) | 58 (29.7%) |
| | 66~70세 | 14 (20.3%) | 18 (40.0%) | 8 (30.8%) | 7 (31.8%) | 8 (25.8%) | - | 55 (28.2%) |
| | 71~75세 | 17 (24.6%) | 12 (26.7%) | 4 (15.4%) | 4 (18.2%) | 8 (25.8%) | 1 (50.0%) | 46 (23.6%) |
| | 76~80세 | 16 (23.2%) | 6 (13.3%) | - | 3 (13.6%) | 4 (12.9%) | - | 29 (14.9%) |
| | 81세이상 | 3 (4.3%) | 2 (4.4%) | - | 1 (4.5%) | 1 (3.2%) | - | 7 (3.6%)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학력 | 무학 | 23 (33.3%) | 20 (44.4%) | 3 (11.5%) | 7 (31.8%) | 8 (25.8%) | 1 (50.0%) | 62 (31.8%) |
| | 초졸 | 26 (37.7%) | 16 (35.6%) | 8 (30.8%) | 13 (59.1%) | 5 (16.1%) | - | 68 (34.9%) |
| | 중졸 | 11 (15.9%) | 5 (11.1%) | 5 (19.2%) | 1 (4.5%) | 7 (22.6%) | - | 29 (14.9%) |
| | 고졸 | 7 (10.1%) | 3 (6.7%) | 6 (23.1%) | 1 (4.5%) | 8 (25.8%) | - | 25 (12.8%) |
| | 전문대이상 | 2 (2.9%) | 1 (2.2%) | 4 (15.4%) | - | 3 (9.7%) | 1 (50.0%) | 11 (5.6%)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종교 | 무교 | 27 (39.1%) | 21 (46.7%) | 13 (50.0%) | 10 (45.5%) | 14 (45.2%) | - | 85 (43.6%) |
| | 기독교 | 13 (18.8%) | 6 (13.3%) | 7 (26.9%) | 7 (31.8%) | 12 (38.7%) | 1 (50.0%) | 46 (23.6%) |

| 구 분 | | 의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 | | | | 전체 |
|----------|--------------|-----------------------------|----------------|----------------|----------------|----------------|---------------|-----------------|
| | | 버스오래 기다림 | 보행도로 미설치 | 고르지못한도로 | 차량이 많아위험 | 버스정류장거리법 | 기타 | |
| | 천주교 | 3 (4.3%) | 2 (4.4%) | 1 (3.8%) | - | 1 (3.2%) | - | 7 (3.6%) |
| | 불교 | 25 (36.2%) | 15 (33.3%) | 5 (19.2%) | 5 (22.7%) | 4 (12.9%) | 1 (50.0%) | 55 (28.2%) |
| | 기타 | 1 (1.4%) | 1 (2.2%) | - | - | - | - | 2 (1.0%)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 | - | 2 (7.7%) | - | - | - | 2 (1.0%) |
| | 10~30년미만 | 4 (5.8%) | - | 3 (11.5%) | - | 1 (3.2%) | - | 8 (4.1%) |
| | 30~50년미만 | 7 (10.1%) | 2 (4.4%) | 4 (15.4%) | 3 (13.6%) | 3 (9.7%) | 1 (50.0%) | 20 (10.3%) |
| | 50~70년미만 | 26 (37.7%) | 19 (42.2%) | 13 (50.0%) | 11 (50.0%) | 16 (51.6%) | - | 85 (43.6%) |
| | 70년이상 | 32 (46.4%) | 24 (53.3%) | 4 (15.4%) | 8 (36.4%) | 11 (35.5%) | 1 (50.0%) | 80 (41.0%)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동거 여부 | 혼자 | 25 (36.2%) | 11 (24.4%) | 4 (15.4%) | 6 (27.3%) | 12 (38.7%) | - | 58 (29.7%) |
| | 배우자 등 | 44 (63.8%) | 34 (75.6%) | 22 (84.6%) | 16 (72.7%) | 19 (61.3%) | 2 (100.0%) | 137 (70.3%)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주거 형태 | 자가 | 60 (87.0%) | 42 (93.3%) | 25 (96.2%) | 20 (90.9%) | 27 (87.1%) | 2 (100.0%) | 176 (90.3%) |
| | 임대 | 5 (7.2%) | 2 (4.4%) | 1 (3.8%) | 2 (9.1%) | 3 (9.7%) | - | 13 (6.77%) |
| | 기타 | 4 (5.8%) | 1 (2.2%) | - | - | 1 (3.2%) | - | 6 (3.1%)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 평균 소득 | 50만원 미만 | 12 (17.4%) | 6 (13.3%) | 2 (7.7%) | 5 (22.7%) | 4 (12.9%) | - | 29 (14.9%) |
| | 50~100만원 미만 | 29 (42.0%) | 15 (33.3%) | 5 (19.2%) | 4 (18.2%) | 14 (45.2%) | 1 (50.0%) | 68 (34.9%) |
| | 100~200만원 미만 | 17 (24.6%) | 20 (44.4%) | 13 (50.0%) | 9 (40.9%) | 11 (35.5%) | - | 70 (35.9%) |
| | 200~300만원 미만 | 10 (14.5%) | 4 (8.9%) | 6 (23.1%) | 4 (18.2%) | 1 (3.2%) | 1 (50.0%) | 26 (13.3%) |
| | 300~500만원 미만 | 1 (1.4%) | - | - | - | 1 (3.2%) | - | 2 (1.0%) |
| | 전체 | 69 (100.0%) | 45 (100.0%) | 26 (100.0%) | 22 (100.0%) | 31 (100.0%) | 2 (100.0%) | 195 (100.0%) |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두 집단 이상으로 이에 따른 교통 인프라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23) 연령, 학력, 동거 여부에 따라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3】 인구통계학적 요인-교통 인프라 ANOVA 분석

| 인구통계학적요인 | | 교통 인프라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성별 | -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3 | .981 | .201 | .655 |
| |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82 | 1.002 | .384 | .536 |
| | -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81 | 1.002 | 2.383 | .124 |
| 연령 | 60~65세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5 | .940 | 3.857** | .005 |
| | 66~70세 | | 2.65 | .966 | | |
| | 71~75세 | | 2.72 | 1.047 | | |
| | 76~80세 | | 2.21 | .819 | | |
| | 81세이상 | | 1.43 | .787 | | |
| | 전체 | | 2.53 | .981 | | |
| | 60~65세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74 | .928 | 3.863** | .005 |
| | 66~70세 | | 2.95 | 1.044 | | |
| | 71~75세 | | 3.09 | .962 | | |
| | 76~80세 | | 2.59 | .946 | | |
| | 81세이상 | | 1.71 | .951 | | |
| | 전체 | | 2.82 | 1.002 | | |
| | 60~65세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79 | .894 | 4.401** | .002 |
| | 66~70세 | | 2.93 | 1.034 | | |
| | 71~75세 | | 3.04 | 1.010 | | |
| | 76~80세 | | 2.52 | .911 | | |
| | 81세이상 | | 1.57 | .976 | | |
| | 전체 | | 2.81 | 1.002 | | |
| 학력 | 무학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2 | .987 | 4.399** | .002 |
| | 초졸 | | 2.74 | .924 | | |
| | 중졸 | | 2.07 | .799 | | |
| | 고졸 | | 2.24 | .879 | | |
| | 전문대이상 | | 3.18 | 1.328 | | |
| | 전체 | | 2.53 | .981 | | |
| | 무학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92 | .997 | 5.525*** | .000 |
| | 초졸 | | 3.10 | .900 | | |

| 인구통계학적요인 | | 교통 인프라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 중졸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28 | 1.032 | 4.737** | .001 |
| | 고졸 | | 2.36 | .810 | | |
| | 전문대이상 | | 3.00 | 1.183 | | |
| | 전체 | | 2.82 | 1.002 | | |
| | 무학 | | 2.95 | 1.047 | | |
| | 초졸 | | 2.99 | .889 | | |
| | 중졸 | | 2.24 | .912 | | |
| | 고졸 | | 2.44 | .870 | | |
| | 전문대이상 | | 3.18 | 1.250 | | |
| | 전체 | | 2.81 | 1.002 | | |
| 종교 | -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3 | .981 | .954 | .434 |
| |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82 | 1.002 | .386 | .818 |
| | -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81 | 1.002 | 1.000 | .409 |
| 거주기간 | -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3 | .981 | .589 | .671 |
| |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82 | 1.002 | .579 | .679 |
| | -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81 | 1.002 | .454 | .769 |
| 동거여부 | -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3 | .981 | 1.912 | .168 |
| |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82 | 1.002 | 2.767 | .098 |
| | -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81 | 1.002 | 1.453 | .230 |
| 주거형태 | 자가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0 | .962 | 3.688* | .027 |
| | 임대 | | 3.15 | 1.144 | | |
| | 기타 | | 2.00 | .632 | | |
| | 전체 | | 2.53 | .981 | | |
| |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82 | 1.002 | 1.501 | .225 |
| | 자가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77 | .978 | 5.883** | .003 |
| | 임대 | | 3.62 | 1.044 | | |
| | 기타 | | 2.17 | .753 | | |
| 전체 | 2.81 | | 1.002 | | | |
| 평균소득 | - | 대중교통 배차시간 만족도 | 2.53 | .981 | 1.273 | .282 |
| |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 2.82 | 1.002 | 2.134 | .078 |
| | - | 전반적 교통 여건 만족도 | 2.81 | 1.002 | 1.298 | .272 |

*p <.05, **p <.01, ***p <.001

5. 삶의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는 보통이 59명 (30.3%)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역시 보통이 85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에서는 보통이 74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에서 역시 보통이 68명(3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4 참고).

【표 4-24】 삶의 만족도 응답 현황(I)

| 구 분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22 | 11.3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57 | 29.2 |
| | 보통이다 | 59 | 30.3 |
| | 그렇다 | 47 | 24.1 |
| | 매우 그렇다 | 10 | 5.1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3.1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4 | 17.4 |
| | 보통이다 | 85 | 43.6 |
| | 그렇다 | 51 | 26.2 |
| | 매우 그렇다 | 19 | 9.7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2.6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9 | 20.0 |
| | 보통이다 | 74 | 37.9 |
| | 그렇다 | 63 | 32.3 |
| | 매우 그렇다 | 14 | 7.2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3.6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7 | 19.0 |
| | 보통이다 | 68 | 34.9 |
| | 그렇다 | 64 | 32.8 |
| | 매우 그렇다 | 19 | 9.7 |

또한, ‘나는 행복하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명(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명(8.2%), 보통이다 81명(41.5%), 그렇다 75명(38.5%), 매우 그렇다 22명(11.3%)으로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5명(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명(12.8%), 보통이다 78명(40.0%), 그렇다 66명(33.8%), 매우 그렇다 21명(10.8%)으로 역시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참고).

【표 4-25】 삶의 만족도 응답 현황(Ⅱ)

| 구 분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나는 행복하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5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6 | 8.2 |
| | 보통이다 | 81 | 41.5 |
| | 그렇다 | 75 | 38.5 |
| | 매우 그렇다 | 22 | 11.3 |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2.6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5 | 12.8 |
| | 보통이다 | 78 | 40.0 |
| | 그렇다 | 66 | 33.8 |
| | 매우 그렇다 | 21 | 10.8 |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두 집단 이상으로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26) 연령, 학력, 동거 여부에 따라 의료시설 접근성 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고, 학력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보건의료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인구통계학적 요인-삶의 만족도 ANOVA 분석

| 인구통계학적요인 | | 삶의 만족도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성별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1.171 | .281 |
| | 남자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38 | .958 | 6.833* | .010 |

| 인구통계학적요인 | | 삶의 만족도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연령 | 여자 | | 3.03 | .912 | | |
| | 전체 | | 3.22 | .951 | |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499 | .481 |
| |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26 | .994 | 2.451 | .119 |
| | - | 나는 행복하다 | 3.52 | .821 | 3.847 | .051 |
| | -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37 | .930 | 3.516 | .062 |
|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412 | .800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22 | .951 | .680 | .607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804 | .524 |
| | 60~65세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28 | 1.039 | 2.536* | .042 |
| | 66~70세 | | 3.49 | .858 | | |
| | 71~75세 | | 3.30 | .986 | | |
| | 76~80세 | | 2.86 | .990 | | |
| | 81세이상 | | 2.71 | 1.254 | | |
| 전체 | 3.26 | | .994 | | | |
| - | 나는 행복하다 | 3.52 | .821 | 1.363 | .249 | |
| 60~65세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83 | .875 | 2.839* | .026 | |
| 66~70세 | | 3.60 | .873 | | | |
| 71~75세 | | 3.39 | .954 | | | |
| 76~80세 | | 3.10 | 1.012 | | | |
| 81세이상 | | 2.57 | 7.87 | | | |
| 전체 | | 3.37 | .930 | | | |
| 학력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1.065 | .375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22 | .951 | 1.859 | .119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2.137 | .078 |
| | 무학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34 | .974 | 3.198* | .014 |
| | 초졸 | | 3.46 | .937 | | |
| | 중졸 | | 2.86 | 1.026 | | |
| | 고졸 | | 2.88 | .881 | | |
| | 전문대이상 | | 3.55 | 1.214 | | |
| | 전체 | | 3.26 | .994 | | |
| | - | 나는 행복하다 | 3.52 | .821 | .648 | .629 |
| | 무학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37 | .873 | 3.564** | .008 |
| | 초졸 | | 3.63 | .929 | | |
| | 중졸 | | 3.03 | .944 | | |
| | 고졸 | | 3.00 | .913 | | |

| 인구통계학적요인 | | 삶의 만족도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 전문대이상 | | 3.55 | .820 | | |
| | 전체 | | 3.37 | .930 | | |
| 종교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1.308 | .268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22 | .951 | 1.977 | .100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1.524 | .197 |
| |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26 | .994 | 1.759 | .139 |
| | - | 나는 행복하다 | 3.52 | .821 | 1.310 | .268 |
| | 무교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47 | .983 | 2.686* | .033 |
| | 기독교 | | 3.11 | .875 | | |
| | 천주교 | | 3.71 | 1.113 | | |
| | 불교 | | 3.45 | .789 | | |
| | 기타 | | 2.00 | 1.414 | | |
| 전체 | | 3.37 | .930 | | | |
| 거주 기간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998 | .410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22 | .951 | .049 | .995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068 | .991 |
| |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26 | .994 | .920 | .453 |
| | - | 나는 행복하다 | 3.52 | .821 | .307 | .873 |
| | -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37 | .930 | .438 | .781 |
| 동거 여부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1.312 | .253 |
| | 혼자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2.97 | .936 | 6.089* | .014 |
| | 배우자 등 | | 3.33 | .940 | | |
| | 전체 | | 3.22 | .951 | |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3.136 | .078 |
| |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26 | .994 | 3.730 | .055 |
| | - | 나는 행복하다 | 3.38 | .914 | 2.372 | .125 |
| | - | | 3.58 | .774 | | |
| | - | | 3.52 | .821 | | |
| | 혼자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02 | .927 | 12.931*** | .000 |
| 배우자 등 | 3.53 | | .892 | | | |
| 전체 | 3.37 | | .930 | | | |
| 주거 형태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949 | .389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22 | .951 | .916 | .402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2 | .933 | .560 | .572 |

| 인구통계학적요인 | 삶의 만족도 요인 | ANOVA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
| 평균 소득 |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3.26 | .994 | .223 | .800 |
| | - | 나는 행복하다 | 3.52 | .821 | .842 | .433 |
| | -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37 | .930 | 2.038 | .133 |
| | - |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2.83 | 1.079 | .870 | .483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3.22 | .951 | 1.852 | .121 |
| | 50만원미만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3.24 | .872 | 2.612* | .037 |
| | 50~100 | | 2.94 | .896 | | |
| | 100~200 | | 3.36 | .917 | | |
| | 200~300 | | 3.50 | 1.030 | | |
| | 300~500 | | 3.50 | .707 | | |
| | 전체 | | 3.22 | .933 | | |
| | 50만원미만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2.86 | 1.125 | 3.262* | .013 |
| | 50~100 | | 3.10 | .883 | | |
| | 100~200 | | 3.44 | .973 | | |
| | 200~300 | | 3.58 | 1.027 | | |
| | 300~500 | | 4.00 | .000 | | |
| | 전체 | | 3.26 | .994 | | |
| | 50만원미만 | 나는 행복하다 | 3.24 | .951 | 2.740* | .030 |
| | 50~100 | | 3.40 | .756 | | |
| | 100~200 | | 3.61 | .804 | | |
| | 200~300 | | 3.85 | .784 | | |
| 300~500 | 4.00 | | .000 | | | |
| 전체 | 3.52 | | .821 | | | |
| 50만원미만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3.00 | .926 | 7.587*** | .000 | |
| 50~100 | | 3.07 | .834 | | | |
| 100~200 | | 3.59 | .940 | | | |
| 200~300 | | 3.96 | .720 | | | |
| 300~500 | | 4.00 | .000 | | | |
| 전체 | | 3.37 | .930 | | | |

*p <.05, **p <.01, ***p <.001

제3절 연구가설 검증

농촌지역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교통 인프라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2, 3, 4의 검정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16.326(p-value=0.000)으로 이 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R²)=.256으로 25.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Durbin-Watson는 1.68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다중공선성이 없으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값이 -.569, 유의확률(p값)이 .570으로 p > .05이므로 가설 1은 기각 되었다. 교육 인프라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결과 t값이 3.716,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p < .05이므로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문화·여가 인프라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값이 -.018, 유의확률(p값)이 .840으로 p > .05이므로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결과 t값이 3.869,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p < .05이므로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표 4-27】 다중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표준 오차 | β | t값 | 유의확률 | 공차 한계 |
|---|-----------|-------|-------|----------|------|-------|
| 삶의 만족도 | 상수 | .198 | 9.452 | 9.452 | .000 | |
| | 보건의료 인프라 | .055 | -.569 | -.569 | .570 | .644 |
| | 교육 인프라 | .073 | 3.716 | 3.716*** | .000 | .516 |
| | 문화·여가 인프라 | .072 | -.202 | -.202 | .840 | .510 |
| | 교통 인프라 | .061 | 3.869 | 3.869*** | .000 | .657 |
| r=.506, R ² =.256, 수정된 R ² =.240 F=16.326, P=.000, Durbin-Watson=1.687 | | | | | | |

*p < .05, **p < .01, ***p < .001

【표 4-28】 가설검증 결과 정리

| 구 분 | 가 설 | 검증결과 | 분석방법 |
|-------|--|------|------------|
| H1. 1 |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 다중 회귀분석 |
| H1. 2 | 농촌지역 교육 인프라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 H1. 3 | 농촌지역 문화·여가 인프라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 |
| H1. 4 |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2016년에는 13.5%로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25년에 이르면 고령화율이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률 저하로 인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보다 농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인구총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8.4%(통계청, 2015)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은 도시보다 고령화율이 약 3배를 초과한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농촌 노인문제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직면해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82번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농촌의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농촌의 기초적 생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농촌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개선된 생활 인프라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농촌의 노인 복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7. 11월 경북 동부지역인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응답이 미비한 5명을 제외한 195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04명으로 여성 91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60~65세가 29.7%, 66~70세 28.2%, 71~75세 2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초졸이 34.9%, 무학 31.8%, 중졸 14.9%, 고졸 12.8% 순이었고 거

주기간은 79.0%가 6년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교 43.6%, 불교 28.2%, 기독교 23.6% 순이고, 소득수준은 월 100~200만원 미만 35.9%, 50~100만원 미만이 34.9%, 50만원 미만 14.9%, 200~300만원 미만 13.3%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32.8%, 대체로 만족 28.7% 순으로 나왔으며,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보통 46.7%, 대체로 만족 25.1%,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보통 45.1%, 대체로 만족 29.7%,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보통 39.5%, 다소 불만족 28.7% 순으로 응답하여 교통 인프라가 다른 인프라에 비해 다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이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①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농촌지역 교육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농촌지역 문화·여가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개 가설을 세워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교육 및 교통 인프라는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보건의료 및 문화·여가 인프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 지역에 대한 농촌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교육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결과 경북 동부지역(영덕, 영양, 봉화, 울진)의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교육 인프라, 교통인프라가 영향을 미침에 따라, 확실적인 농촌 노인복지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촌노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50% 이상이 시간이 없거나 관련정보가 부족한 이유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 평생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채널 다양화 및 연령별·학력별 서비스 수요가 다름을 인지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가 보통인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이로 인해 농촌은 더욱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급기야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농촌마을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아동관련 교육을 통한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농어촌 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농촌 교육의 차별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버스)으로 버스 배차 시간에 대한 불편함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함으로 인한 배차간격 불만족을 감안해 버스 운행 회수 증대나 운행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나 이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버스 대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100원 효도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수요 응답형 농촌 버스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지역에서는 교육 인프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 만족도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한정적 재원의 투자배분 우선순위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경북 동부지역 4개군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하였으나, 모집단이 해당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0.5%에 불과해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각 지역별 특성들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료 수집이 되지 않아 지역적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생태 환경적으로 비슷한 조건의 농촌노인 복지정책 수립 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충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각각의 인프라 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정책 수립 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곽선숙(2013).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명성·이영성·김민재(2016).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서비스의 지불용의액 추정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제39권 제3호.
- 김원철·남궁문(2015).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이용요금 가치 추정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2호.
- 김태완·이태진·신현웅·윤상용·최현수·김동진·김문길·양시현·윤강재·윤시문·김상욱·우선희·전지현(2009). 농어촌 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주(2013).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농촌노인의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국(2010).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충북 제천시 노인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영·박혜경(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개발연구. 한국사회학회 정기간행물.
- 김유진(2017).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 : 마을예술창작소와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학위논문.
-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6판). 학지사.
- 김현호(2012).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농촌노인의 욕구에 관한 연구 : 옥천군을 중심으로.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노권자(2012).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인환(2017). 농촌노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 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규택(2014). 농촌노인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 칠곡군 가산면을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소라(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
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우덕·이소영·김동진·김철웅·윤종률·남효정(2014).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
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재현(2017). 농어촌의 생활인프라 현황 및 과제.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 주제발표.
- 안석·박대식·김경인(2017).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
제 :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종철·임왕규(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 원광희(2016). 농어촌교통서비스 개선방안.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 윤재선·조수범(2009).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한림성심
대학 논문집 제39집.
- 이정민(2015). 농촌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금자(2008). 노인 삶의 질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 코호트를 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2008).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별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농촌경제 제31권 제4호.
- 임소진(2017).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분석 :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 이규은·김남선(2011). 성별에 따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식이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제13권 제3호.
- 전상민·조규석·박원일(2012).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타당성 검
토 연구.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정도채·심재현·유은영(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 전정배·오현교·박진선·윤성수(2015). 도로 접근성과 기능성을 이용한 통합청주시 농촌지역의 교통 취약성 분석. 농촌계획 제21권 제2호.
- 조미형·박대식·최용욱(2013).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봉란(2014). 노인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판기·민범식·손경환·박세훈·김성수·김재철·김동근·서민호·이승욱·박근현(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 주재형(2015). 웰빙행동과 웰빙 식생활 소비자 태도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의 주관적 삶의 질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원·전경숙(2016). 농촌노인의 허약상태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낙상예방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의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7권 제4호.
- 최신덕(1998). 노년사회학. 하나의학사.
- 최용욱(2016).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KDI FOCUS 통권 제69호.
- 최종성(2014).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경(2016). 노인복지론. 학지사.
- 최홍규(2015). 농촌 노인의 건강실태와 파상풍 부문에 대한 인식 및 보건 의료 서비스 대책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2001). 교육노년학 :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학지사.
- 허문섭(2004). 농촌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iamant, A. L., Hays, R. D., Morales, L. S., Ford, W., Calmes, D., Asch, S., & Sumner, G(2004). Delays and unmet need for health care among adult primary care patients in a restructured urban public health syste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5), 783-789.
- Breen, L. B(1960). The aging individual. In C. Tibbitts (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pp. 145-162). Chicago: University of Chicogo Press.
- Schuessler, K. F., & Fisher, G. A.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
- Lesnoff-Caravaglia, G. (2007). Health aspects of aging: The experience of growing old. *Gerontechnology*, 6, 181-182
-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Retrieved on Oct. 1. available from <http://www.census.go.kr/mainView.do>.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Retrieved on Oct. 1.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2045년. Retrieved on Oct. 1.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경상북도(2016). 2016 경상북도 고령자 통계. Retrieved on Oct. 1. available from http://www.gb.go.kr/open_content/start/index.jsp.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 농축산식품 주요 통계지표.
- 국정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부 록>

설 문 지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농촌어르신 복지를 위해 농촌 생활 인프라가 농촌어르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농촌 복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자 : 이재기

지도교수 : 남진열

I. 일반 사항

1.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60~65세 ② 66~70세 ③ 71~75세 ④ 76~80세 ⑤ 80세 이상

3. 어르신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 졸업 이상

4. 어르신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5. 어르신은 현 거주지에서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년

6.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① 혼자 ② 배우자 등

7. 어르신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 ② 임대 ③ 기타 ()

8. 어르신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인가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미만
 ④ 200~300만원미만 ⑤ 300~500만원미만 ⑥ 500만원이상

IV. 문화·여가 분야

1. 어르신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관람 ② 문화예술활동 ③ 스포츠관람 ④ 스포츠활동
⑤ 여행 ⑥ 취미활동 ⑦ 사회활동 ⑧ 휴식 ⑨ 기타

2. 어르신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역적 제약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적합한 시설이 없음 ②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
③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④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
⑤ 교통이 불편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동호회 조직 등) ⑧ 기타
⑨ 제약요인이 없음

3. 어르신께서 이용하시는 문화·여가활동의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4. 어르신께서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5.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V. 교통 분야

1. 어르신께서 외출 시에 주로 이용하는 통행수단은?

- ① 승용차(자가용) ② 대중교통 ③ 도보 ④ 오토바이
⑤ 자전거 ⑥ 기타()

2. 어르신께서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를 오래 기다림 ② 보행자도로 미설치 ③ 고르지 못한 도로
④ 차량이 많아 다니기에 위험 ⑤ 버스정류장 까지 거리가 멀
⑥ 기타()

3. 어르신께서 외출 시에 대중교통의 배차시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4. 어르신께서 대중교통 이용 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5.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VI. 삶의 만족도

<다음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 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나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 | | | | |
|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 | | | | |
| 농사일에 보람을 느낀다 | | | | | |
|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나는 행복하다 | | | | | |
| 농촌의 삶에 만족한다 | | | | | |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Effect of Rural Living Infrastructure on th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Life : A Study on the Eastern Region of Gyeongbuk

Lee, Jae-Ki

Academic Advisor Nam, Chin-Yeol
Social Welfare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ural living infrastructure on th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life is estimated based on the "Foundation of Welfare Farming & Fishing Village that Everyone Wants to Live in" which is the 82th agenda out of the 100 governmental on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Planning Advisory Committe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July 2017.

Especially,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healthcare, education, culture, leisure,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as investigated to propose an effective policy by suggesting an "Improved Living Infrastructure Model"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200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residing in the areas of Yeongdeok, Yeongyang, Bonghwa, and Uljin

in eastern Gyeongbuk province in November 2017, using the survey method on Welfare of Farmers and Fisher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s a result,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ere found to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region, and healthcare, culture and leisure infrastructure were not aff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s to establish the rural elderly welfare policy for the area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rogram promotion channels for lifelong education and to reinforce the education infrastructure customized for life cycle services by age and education, and to restore vitality of the rural area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hild-related education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transportation bus service and extend the operating time. However, since this could worsen the bus carrier's financial difficulties, it's more recommended to expand the 100-won Hyo-taxi.

Finally, as satisfac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ore affects th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people compared to educational infrastructure, budget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hould be given preference to priority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Keyword

Rural elderly welfare, living infrastructure, settlement conditions, life satisfaction